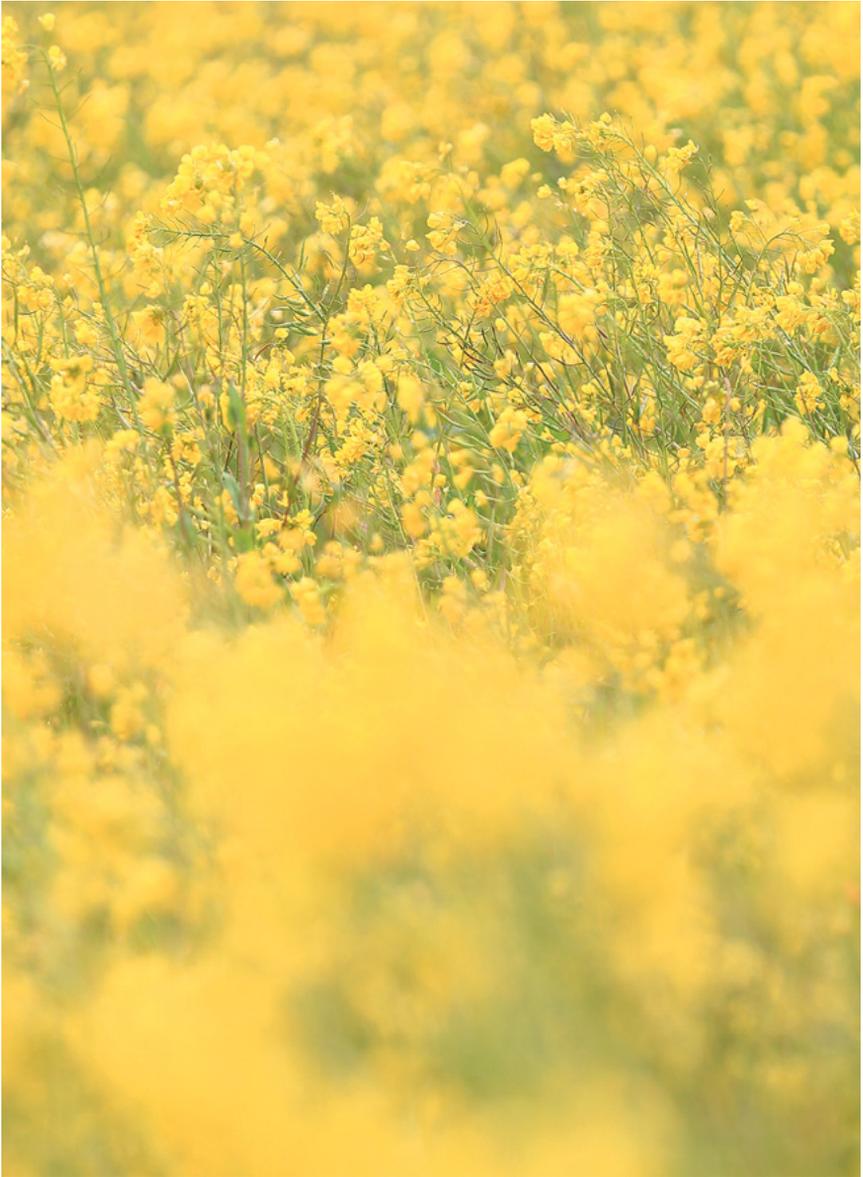


202305

소망
마음
나눔
꿈



5월

가 정 의 달

어린이주일

5월 7일

유아 세례

아버이주일

5월 14일

온 가족 예배

소망교회

THE SOHANG PRESBYTERIAN CHURCH



CONTENTS

May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2
깊어지는 영성	은혜의 단비 안으로 김경진	4
목상에 붙임	파수하는 이 티시 해리스 워런	6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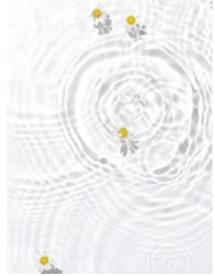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5월 본문	마가복음·학개·에스겔	16
	1주(5/8) 2주(5/15) 3주(5/22) 4주(5/29)	

FAITH

땅끝에서 온 편지	카이타 토르그주, 다시 일어서게 하기 양재성·이현주	50
소망사랑방	하나님의 그림 박상용	88
이스라엘과 코메르 홀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니언, 광야 여행 홍성민	124
공간공감	수피아여학교 소강당 홍성찬	158
이달의 기도	말씀이 안내하는 삶으로	176

COMMUNICATION

문화읽기	<부활>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 황영미	178
소망미당	모습은 달라도 교회학교	182
예배자의 길	5월 우리의 고백 김미혜·임한숙·김동순	186
뿌리를 찾아서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박경수·이근복	190
세계관과 예술의 만남	칼뱅의 영향을 받은 브뤼헬 허윤정	194
돌봄의 창	암 환우분들과의 동행 한상돈	198
소망뉴스		202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주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조금 어렵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주님을 원망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 안으로

글 김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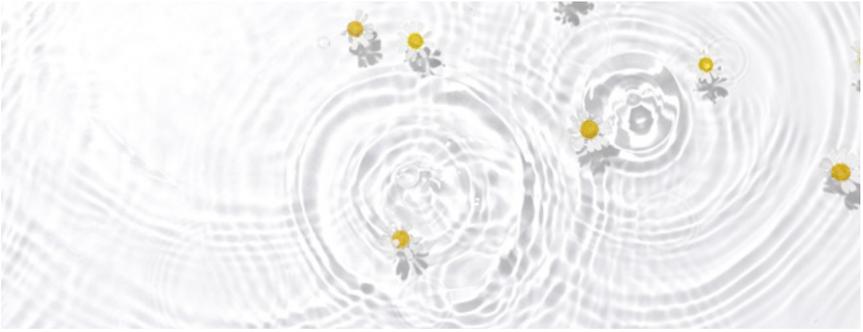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부활절 환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 신앙이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함께 모여 기쁨으로 환호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로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자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믿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스스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시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의미를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 대꾸합니다.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요 2:20)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는 도마의 고백은 당연한 처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 28:5-6 중)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말씀이 참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성경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크나큰 복음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죄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귀찮하시며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Meditation | 묵상에 붙임

파수하는 이

글 티시 해리스 워런



파수하는 것은 주의력, 갈망, 그리고 소망을 함축한다.

우리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에게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은 아침이 언제 올지, 혹은 그사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의 시야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내내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실천으로서, 심지어 하나의 임무로서 파수하기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며 망루에 머문다. 우리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조차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고 선포한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언제까지나 지속될 아름다움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연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파수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파수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 이상을 함축한다. 그것은 운전면허 시험장 대기줄에서 있는 것 같은 지루한 불안감이 아니다. 파수하는 것은 주의력, 갈망, 그리고 소망을 함축한다. 그것은 북적거리는 공항에서 꽃을 손에 들고 오직 한 얼굴을 찾고 있는 연인이며, 출산의 첫 징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예비 엄마이고, 수술실 밖을 서성거리는 친구다.

신자의 변함없는 자세는 고대하면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놀랍고 기적적인 것이든 조용한 변화의 물결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를, 나타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병든 이에게 치유를, 갈등에 평화를, 실망에 격려를, 혼란스러움에 명료함을 가져오시기를 기다린다. 때로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때로 병든 이는 죽고, 갈등은 심화되고, 실망은 깊어지고, 혼란은 심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파수하며 기다린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순간 곧 랜턴 불빛이 비추는 이 작은 테두리가 길 전체가 아니며 이야기가 전체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기다리며 파수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적 재배열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아름다움이 끔찍함보다 오래 지속되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으리라는 단독 증거다. 비록 세상은 어둠의 수의로 덮여 있을지라도 내가 계속 파수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갈망하는 것들이 그저 희망사항이나 종교 의식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굴러 나간 돌처럼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써, 즉 장차 올 그 나라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자신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숨죽여 기다림으로써 신정론의 신비를 견딘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단지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기념품만 남기고 가지지 않았다. 그분은 계속 일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보내셨다. 부활의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시제에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올 나라를,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를 기다리며 파수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엿볼 것을 기다리며 파수하기도 한다.

기독교 제자도는 바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식하는 법을 평생 훈련하는 것이다. 오랜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산만함과 두려움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

우리는 파수하기를 배운다. 지금도 우리는 장차 올 구속을 엿보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 기도를 통해, 회중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눈을 훈련한다.

- 티시 해리스 워런 "밤에 드리는 기도," (IVP, 2021) 93-105 중 일부.

WORD

마가복음 · 학개 ·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에스겔 46:1-15**

월요일 사바트 6:20 이후에 열린 후일

말씀 속으로

- 1 주 예루살렘이 파멸이 임할까 염려하여 성벽의 문들을 열었다. 열은 열에 문간에는 문과 문간에는 열이 열려야 했다. 열고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he gate of the inner court being shut is to be shut on the six working days, but on the Sabbath day and on the day of the New Moon it is to be opened."
- 2 군주는 바깥 문 원단을 통하여 들어가서 문 벽 안에 서고, 세 사람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군주는 문 통로에서 제례할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지막까지 닫지 않을 것이다.
The prince is to enter from the outside through the portico of the gateway and stand by the gateway. The priests are to sacrifice the burnt offering and the fellowship offering. He is to worship at the threshold of the gateway and then go out, but the gate will not be shut until evening.
- 3 이 말 백삼십 안이일과 율리우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예루와 앞에 제례할 것이다.
On the Sabbaths and New Moons the people of the land are to worship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t the entrance to that gateway.

16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목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외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목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해 |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말씀을 찬양하는 단계입니다.

1. 본문을 2~3번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1) 1차 읽기: 흐름을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2) 2차 읽기: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3) 3차 읽기: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2.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1) 1차 읽기: 흐름을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2) 2차 읽기: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3) 3차 읽기: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적용 | 본문을 읽고 나의 삶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1. 본문을 읽고 나의 삶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1) 1차 읽기: 흐름을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2) 2차 읽기: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3) 3차 읽기: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2. 본문을 읽고 나의 삶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1) 1차 읽기: 흐름을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2) 2차 읽기: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3) 3차 읽기: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목적입니다 |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내게 생명을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 |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공통 기도 |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 |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공통 기도 |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12-14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이 곳곳에 드러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소출을 걷지 못하는 농부, 결정적으로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린 하나님의 성전에 빚대어진다(11:12-19, 12:1-12).

비유에 담긴 이야기들은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두개인들', '서기관 중 '한 사람', '서기관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한 사람, 그렇게 모두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 있는 현실이 그려진다(12:18-40). 그리고 이내 나무를 뿌리째 흔드시는 음성이 들려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12:17)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왜 죽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우리 믿음도 매 순간 살아 있어야 한다는 칼 같은 말씀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끌어안은 채 외식하기를 즐긴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뒷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12:38-40)

그때 한 과부가 고개를 내민다. 가난한, 가난한, 가난한, 그러니까 도저히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그녀의 손안에 두 렵돈이 들려 있다(12:42). 머지않아 '쨍!' 하는 소리가 나고, 과부를 삼킬 듯한 현금함을 주목하시는 주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진다(12:41). 불린 배를 더 불리겠다고 로마에 아첨하는 종교 지도자의 현실에 급기야 등을 돌리시고 만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삶에 빗장을 걸어 잠그시듯 성전을 떠나시는 발걸음 사이로 말씀이 흘러나온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13:2) 죽음으로 가득한 땅을 향하여 꽃으신 예수님의 비장한 선고이다. 이제는 산 믿음, 산 증인으로 가득할 새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이기도 하다. 이후로 주님은 성전을 찾지 않으셨고, 스스로 성전이 되시어 한 가지 부탁을 남기신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13:28-37) 그런데 오래지 않아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진다(14:32-42). 그것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 반면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그분이 명하신 깨어 있는 삶의 의미를 조용히 깨닫게 만든다.

예수님은 매 순간 열린 하늘 사이로 아버지와 대화하셨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섭리에 순복하며 지존자의 다스림 안에 거하셨다. 이 은혜의 장으로 잠 든 인간을 불러들이시고자,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와 끊어지는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다. 이것이 너무도 두려워 사무치게 우선 주님이 따침내 일어서신다. 그 순간 잠을 청한 제자들도 덩달아 깨어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14:42) 나는 죽고 너희는 살겠으니, 살아서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다. 열린 하늘 사 이로 임하실 성령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13:10-11).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부인한 자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로 베드로를 변화시킨다. 그를 이어 우리 또한 끝까지 인도하시며 날마다 산 증인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변개함이 없으신 여 호와의 말씀이 하늘 가르고 구름 타고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를 ‘이미’ 세위 간다(13:26).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6일 주간		
1(월)	에스겔 46:1~15	새 성전에서의 예배 규정
2(화)	마가복음 12:18~27	산 자의 하나님
3(수)	12:28~37	서기관을 향하신 주님의 책망
4(목)	12:38~13:2	무너질 성전에 관한 예고
5(금)	13:3~13	재난의 징조
6(토)	에스겔 46:16~24	군주의 책임, 제물방에 관한 규정
8~13일 주간		
8(월)	에스겔 47:1~12	성전에서 흐르는 물 환상
9(화)	마가복음 13:14~27	환난의 징조
10(수)	13:28~37	메시아 날이 임할 시기
11(목)	14:1~11	옥함을 깨트린 여인, 유다의 배반 예고
12(금)	14:12~26	유월절 만찬
13(토)	에스겔 47:13~23	땅 분배에 관한 규정
15~20일 주간		
15(월)	에스겔 48:1~14	각 지파에게 분배될 몫
16(화)	마가복음 14:27~31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주님
17(수)	14:32~42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18(목)	14:43~52	무리들에 끌려가시는 주님
19(금)	14:53~65	공회에서 심문받으시는 주님
20(토)	에스겔 48:15~22	거룩한 땅에 관한 규정
22~27일 주간		
22(월)	에스겔 48:23~35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백성
23(화)	학개 1:1~6	학개에게 임한 말씀
24(수)	학개 1:7~11	근본적인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25(목)	학개 1:12~15	유다 지도자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26(금)	학개 2:1~9	지도자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
27(토)	학개 2:10~19	하나님께 합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
29~31일 주간		
29(월)	학개 2:20~23	백성의 미래를 보증하시는 하나님
30(화)	마가복음 14:66~72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31(수)	15:1~15	빌라도 심문

5

May 2023

SUN

MON

TUE

WED

1

2

3

7 어린이주일

유아 세례

8

9

10

14 어버이주일

은 가족 예배

15

16

17

권사회 월례회

21

22

23

24

28 성령강림주일

29

30

31

6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HU	FRI	SAT
4	5 어린이날	6
11	12 여전도회 연합예배	13
18	19	20
25	26	27



1

에스겔 46:1~15

월요일

오늘의 찬송 620 여기에 모인 우리

말씀 속으로

-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옛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he gate of the inner court facing east is to be shut on the six working days, but on the Sabbath day and on the day of the New Moon it is to be opened.

- 2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 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The prince is to enter from the outside through the portico of the gateway and stand by the gatepost. The priests are to sacrifice his burnt offering and his fellowship offerings. He is to worship at the threshold of the gateway and then go out, but the gate will not be shut until evening.

- 3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On the Sabbaths and New Moons the people of the land are to worship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t the entrance to that gateway.

-
- 4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The burnt offering the prince brings to the LORD on the Sabbath day is to be six male lambs and a ram, all without defect.

- 5 그 소제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 씩이 나라

The grain offering given with the ram is to be an ephah, and the grain offering with the lambs is to be as much as he pleases, along with a hin of oil for each ephah.

- 6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On the day of the New Moon he is to offer a young bull, six lambs and a ram, all without defect.

- 7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씩이며

He is to provide as a grain offering one ephah with the bull, one ephah with the ram, and with the lambs as much as he wants to give, along with a hin of oil with each ephah.

- 8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When the prince enters, he is to go in through the portico of the gateway, and he is to come out the same way.

- 9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 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When the people of the land come before the LORD at the appointed feasts, whoever enters by the north gate to worship is to go out the south gate; and whoever enters by the south gate is to go out the north gate. No one is to return through the gate by which he entered, but each is to go out the opposite gate.

- 10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The prince is to be among them, going in when they go in and going out when they go out.

- 11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씩이며

At the festivals and the appointed feasts, the grain offering is to be an ephah with a bull, an ephah with a ram, and with the lambs as much as one pleases, along with a hin of oil for each ephah.

- 12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When the prince provides a freewill offering to the LORD - whether a burnt offering or fellowship offerings - the gate facing east is to be opened for him. He shall offer his burnt offering or his fellowship offerings as he does on the Sabbath day. Then he shall go out, and after he has gone out, the gate will be shut.

13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Every day you are to provide a year-old lamb without defect for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morning by morning you shall provide it.

14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You are also to provide with it morning by morning a grain offering, consisting of a sixth of an ephah with a third of a hin of oil to moisten the flour. The presenting of this grain offering to the LORD is a lasting ordinance.

15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So the lamb and the grain offering and the oil shall be provided morning by morning for a regular burnt offer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릴 예배 규정이 소개됩니다(1~8).

1-15절에 이르는 말씀은 새 성전에서 드러질 예배에 관한 규정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러질 예배 규정이 기록되고 있는데, 안식일과 초하루가 될 때면 단혀 있던 안뜰 동쪽 문을 열라고 지시하시는 음성이 흥미롭습니다. 안뜰과 바깥뜰 사이의 동쪽 문이 한 주에 한 번인 안식일과 한 달에 한 번인 초하루를 맞이하며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 곁에는 군주가 서는데 군주를 중심으로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서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가 하면, 군주 뒤의 바깥뜰에는 백성이 자리하며 예배에 함께합니다. 이 한 폭의 장면에서 제사장과 백성의 사이를 중재하는 군주의 역할이 사뭇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군주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제물드리는 일도 주관하였는데, 6-7절은 그날에 군주가 준비하여 바칠 제물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 명절의 예배에는 백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9~15).

살펴보았듯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에는 군주가 제법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모든 정한 절기’ 즉 명절에는 백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명절이 이르면 복문으로 들어온 백성은 남문으로 나아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백성은 북문으로 나가며 예배가 보다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에 군주는 백성 가운데 함께하며 예배드리는가 하면, 이날에는 군주가 아닌 백성이 소제로 바칠 제물을 직접 준비합니다. 한편, 13-15절은 절기에 이어 ‘매일’마다 드려져야 할 예배에 관한 규정을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과 달리, 에스겔 시대에 예고된 새 성전에서는 아침에만 번제가 드려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제사에 관한 매우 상세한 규정은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이 제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까?
2. 예배를 위하여 제사장, 군주, 백성 각자의 몫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바르게 서는 땅이 되기를 중보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3:19~22 ¹⁹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²⁰ 주님의 모든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²¹ 주님의 모든 군대들이,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²² 주님께 지음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

마가복음 12:18~27

화요일

오늘의 찬송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말씀 속으로

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Then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with a question.

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Teacher,” they said,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marry the widow and have children for his brother.

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 이 죽고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one married and died without leaving any children.

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The second one married the widow, but he also died, leaving no child. It was the same with the third.

22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In fact, none of the seven left any children. Last of all, the woman died too.

23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Jesus replied, "Are you not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When the dead rise, they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26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 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Now about the dead rising - have you not read in the book of Moses, in the account of the bush, how God said to him,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12:19 신 25:5

12:26 출 3:6

2

—

화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You are badly mistake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18~23).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비롯하여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세금 논쟁에 관한 기사는 동일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이어 ‘사두개인’이 등장하며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하는 또 다른 무리가 묘사됩니다(18절). 이들은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신념을 따라 수훈법을 예로 들며, 일곱 형제에게 시집 간 과부가 부활한다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지를 묻습니다. 너무도 극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기세를 꺾으려는 당찬 포부가 느껴지는가 하면, 수훈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법은 남편 없이 홀로 남은 과부와 그 집안을 살리고자 재혼을 허용하신 법인데, 사두개인은 정작 남은 자는 보지 못하고 죽은 남편에만 초점을 두며 부활을 거부합니다.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한 완강함이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는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24~27).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잠잠히 들으신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24절) 주님은 사두개인이 말한 ‘모세가 써 주었다’는 표현을 ‘성경’으로 되받아치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법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밝히신 말씀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26절). 이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이 일을 눈으로 보여 주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춥니다. 죽음을 대비하여 동전에 형상을 새기고 기념하게 만든 로마 황제와 달리 스스로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능히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날마다 새롭게, 영원히 살아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죽은 자나 산 자의 생명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허락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고난과 아픔, 환난과 근심 중에도 기뻐할 근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당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7:1~2 ¹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²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3

마가복음 12:28~37

수요일

오늘의 찬송 459 누가 주를 따라

말씀 속으로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One of the teachers of the law came and heard them debating. Noticing that Jesus had given them a good answer, he asked him, "Of all the commandmen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The most important one," answered Jesus, "is th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Well said, teacher,” the man replied, “You are right in saying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 other but him.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 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When Jesus saw that he had answered wise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And from then on no one dared ask him any more questions.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While Jesus was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he asked, “How is it that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12:29 신 6:4 이하
12:31 레 19:18

3
—
수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
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
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David himself, speaking by the Holy Spirit, declare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
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David himself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The large crowd listened to him with deligh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28~34)

본 단락은 한 서기관관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28절) 그러자 주님은 유대인이자라면 익히 아는 신명기 6장 4~6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29~31절). 이 구절이 특히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답변을 들은 서기관관이 즉시 외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32절)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질문의 본래적 의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서기관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닌 예수라 하는 자가 과연 소동을 일으킬 자격이 있는지를 반문한 셈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이유가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34절) 칭찬처럼 들리는 음성이지만 사실은 으뜸되는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서기관관을 향한 꾸짖음이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일러 주신 경고입니다.

2. 성전에서 비밀이 열립니다(35~37).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반역하는 무리의 저항 또한 거세어집니다. 그들 중에는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한 서기관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도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일에 속도를 내고 계셨습니다. 본 단락은 이 일이 일어난 배경으로서 ‘성전’을 지목하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증언합니다(35,37절). 성전에 모여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35절) 방금 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질문한 서기관관을 염두에 두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때로부터 약속된, 다윗의 계보를 이어 탄생할 메시야는 분명 참 사람이면서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약속대로 예언된 메시야가 육신을 입고 나타났으니 반역하는 무리 한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수님은 앎, 감정, 행동이 함께하는 산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을 사모합니까?
2. 성경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7:10~14 ¹⁰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십니다. ¹¹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 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¹²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¹³ 주님이 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¹⁴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4

마가복음 12:38~13:2

목요일

오늘의 찬송 88 내 진정 사모하는

 말씀 속으로

-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As he taught, Jesus said, “Watch out for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like to walk around in flowing robes and be greeted in the marketplaces,

-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and ha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banquets.

- 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show make lengthy prayers. Such men will be punished most severely.”

- 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and watched the crowd putting thei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Many rich people threw in large amounts.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But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two very small copper coins, worth only a fraction of a penny.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Jesus said, "I tell you the truth,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They all gave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 - all she had to live on."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As he was leaving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Do you see all these great buildings?" replied Jesus,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will be thrown down."

12:42 렵돈
헬라 동전의 명칭

12:42 고드란트
로마 동전의 명칭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외식하는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38~40).

계명을 아는 듯하나 정작 삶은 따르지 않는 서기관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12:34). 이렇듯 행함 없는 믿음, 열매 없는 삶에 관한 주의가 11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단락에는 ‘서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말씀과 함께 외식하는 믿음, 외식하는 삶을 경계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38~40 절) 사람들의 눈에 서기관은 율법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찬 명예로운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껌테기에 불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돌’이라고 꾸짖으시며, 무너지는 성전 안에서 믿음의 터전이 새로워져야 하는 현실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13:2).

2.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41~13:2)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한 서기관의 민낯이 드러나자마자 한 과부가 소개됩니다.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 ‘가난한’, ‘가난한’, ‘가난한’이라는 표현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 없었던 삶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소유 전부를 바친 과부의 믿음이 재산의 일부를 내어 드린 부자와 비교되는 일은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극심한 가난 중에 재산 전부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게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함을 주목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 주님의 시선은 헌금함을 뛰어넘어 높은 성전세를 바치도록 만든 사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41절). 이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높은 성전세를 규정화했다는 점은 서기관의 이야기 뒤로 과부가 등장한 이유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결국 주님이 불의한 의도와 불의한 재물로 쌓아올린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세우시고자 길을 직접 나서십니다(13:1-2).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지식이 많을수록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나의 지식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2.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불의한 것에서 돌이키는 삶을 가르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불의한 마음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8:37~39 ³⁷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³⁸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때,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³⁹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 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5

마가복음 13:3~13

—
금요일
어린이날

오늘의 찬송 393 오 신실하신 주

말씀 속으로

- 3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opposite the temple, Peter, James, John and Andrew asked him privately,

- 4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that they are all about to be fulfilled?”

- 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Jesus said to them: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he,’ and will deceive many.

-
- 7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When you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do not be alarmed.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still to come.

- 8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nd famines.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You must be on your guard. You will be handed over to the local councils and flogged in the synagogues. On account of me you will stand before governors and kings as witnesses to them.

- 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And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Whenever you are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do not worry beforehand about what to say. Just say whatever is given you at the time, for it is not you speaking, but the Holy Spirit.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Brother will betray brother to death, and a father his child.
Children will rebel against their parents and have them put to death.

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All men will hate you because of me,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진리를 따르는 자는 평안합니다(3~8).

11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말씀의 주된 배경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성전에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더불어 성전이 무너지는 예고가 기록됩니다. 이로써 성경은 성전의 주인이자 참된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서서히 계시하는데, 이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나는 ‘때’와 그날을 둘러싼 ‘징조’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었습니까?”(4절) 그러자 주님이 먼저는 미혹하는 자 곧 거짓 선지자를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5~6절) 그러나 난리와 소문이 거둬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는 평안이 약속됩니다(7절).

2.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9~13).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약속하신 말씀 안에는 역설적이게도 고난이 전제됩니다. 9절이 그 사실을 알리며 예수님이 그러하시듯 제자들 역시 공회에 넘겨지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게 될 미래가 언급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르실 골고다 언덕을 이후에 제자들이 따라 걸으며 십자가의 길 안으로 모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까닭에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시고, 앞장서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11절). 성경은 환난과 핍박이 거듭되는 가운데도 성령에 이끌리어 전할 말을 전하는 것, 즉 만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두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증언합니다(10절).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또한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는 영광스런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축복을 얻습니다(13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주님은 거짓이 난무하고 핍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삶을 당부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엇에 이끌리어 살아가는지 돌아보며 성령께서 친히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30~34,39~40 ³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³¹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³²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³³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³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³⁹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⁴⁰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6

에스겔 46:16~24

토요일

오늘의 찬송 452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말씀 속으로

- 1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어니와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f the prince makes a gift from his inheritance to one of his sons, it will also belong to his descendants; it is to be their property by inheritance.

- 17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회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If, however, he makes a gift from his inheritance to one of his servants, the servant may keep it until the year of freedom; then it will revert to the prince. His inheritance belongs to his sons only; it is theirs.

- 18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The prince must not take any of the inheritance of the people, driving them off their property. He is to give his sons their inheritance out of his own property, so that none of my people will be separated from his property.”

-
- 19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Then the man brought me through the entrance at the side of the gate to the sacred rooms facing north, which belonged to the priests, and showed me a place at the western end.

- 2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 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He said to me, "This is the place where the priests will cook the guilt offering and the sin offering and bake the grain offering, to avoid bringing them into the outer court and consecrating the people."

- 21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He then brought me to the outer court and led me around to its four corners, and I saw in each corner another court.

- 22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In the four corners of the outer court were enclosed courts, forty cubits long and thirty cubits wide; each of the courts in the four corners was the same size.

6

— 토

23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Around the inside of each of the four courts was a ledge of stone, with places for fire built all around under the ledge.

24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He said to me, “These are the kitchens where those who minister at the temple will cook the sacrifices of the peopl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군주의 재산은 정당하게 상속되어야 합니다(16~18).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백성을 대표하여 군주가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46:1~8). 그런가 하면 정한 절기인 명절에는 군주가 백성 가운데 함께하며 제사드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새롭게 일어날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왕의 책임에 주목하셨습니다. 유사한 메시지가 본 단락에도 이어지는데 흥미롭게도 군주의 재산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먼저는 군주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와, ‘희년이 될 때까지’ 종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상황이 제시되며 군주의 기업은 마땅히 그 가문을 통하여 상속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군주는 자신의 몫 그 이상을 상속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성경은 백성의 몫을 빼앗아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는 한편, 악한 왕의 치하에서는 백성이 떠나는 미래를 예고하기도 합니다(18절).

2. 하나님은 근본부터 깨끗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십니다(19~24).

예배에 관한 규정에 이어 이곳에는 제사 때 바칠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를 설명합니다. 일명 제물방으로 불리는 이곳은 성전 안뜰과 바깥뜰 각각에 위치하는데 안뜰의 제사방은 제사장들이 사용한다면, 바깥뜰의 장소는 레위인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먼저는 에스겔을 제사장의 제물방으로 안내하며 그곳에서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칠 희생제물을 삶거나, 소제로 바칠 제물을 굽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바깥뜰 네 귀퉁이에 있는 제물방으로 인도하며 백성을 위하여 제물을 삶는 레위인의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용하는 제물방이 구별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20절) 즉 제사장이 예복을 입은 채로 바깥뜰에 출입할 수 없듯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의 용도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44:19).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군주의 재산에 관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모두의 몫을 보장하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습니다. 혹시 나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며, 불의하게 힘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2. 세세하고도 정확한 규정은 말씀을 원칙삼아 정결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춥니다. 나의 작은 행실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5:8~13 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⁹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¹⁰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¹¹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¹²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 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¹³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카이타 토르그주' 다시 일어서게 하기

글 양재성·이현주 (카자흐스탄 선교사)

셀레맷스즈 베.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05년 저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현지인 한 명으로 시작된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으뭇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정부에 등록할 수 있었고, 전도받은 사람들 가운데 신학 공부를 마치고 사역자가 되어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성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으뭇교회'는 70세 할머니부터 1살 된 어린아이까지,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있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도 무슬림 전통과 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일로 여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외무르작'이라는 청년이 그런 신앙인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여러 차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고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뭐라 하든 청년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고, 얼굴에는 낙심한 빛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부르는 것이 좋다고만 합니다. 청년의 이런 모습이 주일 성수 개념이 약한 이곳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팎의 현지인들의 영적, 물질적 어려움들과 필요들을 많이 알아 가게 됩니다. 필요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그런 필요가 있



는 사람들을 위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카자흐어로 '카이타 토르그주', 번역하면 '다시 일어서게 하기' 사역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마땅한 기술이 없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주며,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사역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으뜻교회 성도들과도 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매달 현금을 걱정해서 드리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지금은 비전의 씨앗이 마음 밭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을 주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인도해 주시고, 동참할 손길들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 무슬림 선교를 위해 세워진 '으뜻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다이 자르볼슨!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기도 제목

1. 카자흐스탄 최대 미전도 종족인 카자흐족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길
2. '카이타 토르그주' 비전이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이를 위한 많은 기도와 동참의 손길들이 있도록
3. 알콜 중독자 상담 및 다양한 직업 교육과 훈련에 봉사할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 주시기를

7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5/7~13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 119:89)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에스겔 47:1~12

월요일

오늘의 찬송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말씀 속으로

-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The man brought me back to the entrance of the temple, and I saw water coming out from under the threshold of the temple toward the east (for the temple faced east). The water was coming down from under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south of the altar.

-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He then brought me out through the north gate and led me around the outside to the outer gate facing east, and the water was flowing from the south side.

-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As the man went eastward with a measuring line in his hand, he measured off a thousand cubits and then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ankle-deep.

-
- 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He measured off another thousand cubits and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knee-deep. He measured off another thousand and led me through water that was up to the waist.

- 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He measured off another thousand, but now it was a river that I could not cross, because the water had risen and was deep enough to swim in - a river that no one could cross.

-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He asked me, "Son of man, do you see this?" Then he led me back to the bank of the river.

- 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When I arrived there, I saw a great number of trees on each side of the river.

-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He said to me, "This water flows toward the eastern region and goes down into the Arabah, where it enters the Sea. When it empties into the Sea, the water there becomes fresh.

-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Swarms of living creatures will live wherever the river flows. There will be large numbers of fish, because this water flows there and makes the salt water fresh; so where the river flows everything will live.

- 10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Fishermen will stand along the shore; from En Gedi to En Eglaim there will be places for spreading nets. The fish will be of many kinds - like the fish of the Great Sea.

- 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But the swamps and marshes will not become fresh; they will be left for salt.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Fruit trees of all kinds will grow on both banks of the river. Their leaves will not wither, nor will their fruit fail. Every month they will bear, because the water from the sanctuary flows to them. Their fruit will serve for food and their leaves for heal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생명이 이스라엘 땅을 덮습니다(1~6).

레위인의 제물방까지 살핀 에스겔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 성전 문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인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쪽에서 흐르는 물이 남쪽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북쪽 바깥문을 통과하여 동쪽 바깥문에 이르니 그곳에도 물이 스며나오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천사와 에스겔은 흘러나오는 물의 흐름을 따라 동쪽 방향으로 걸어나가며 수심을 측량합니다. 천 척인 물이 금세 차올라 무릎을 덮고, 또다시 천 척을 측량하니 허리까지 차오를 만큼 수심이 깊어집니다. 마침내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을 목도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6절) 이 음성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확신하며 물이 근원한 곳인 성전을 떠올렸을 듯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했던 땅을 하나님이 친히 정결케 하시고 더 이상 기근과 해갈이 없는 풍요로운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7~12).

에스겔을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은 현실 이상의 차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깊은 강만을 보여 주신 것이 아니라 강물이 덮은 땅에는 수목이 무성하게 우거지기까지 합니다. 에덴동산을 연상시키는 듯한 풍경에 하늘과 땅, 바다와 수목, 새와 물고기, 그리고 창조주를 닮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목상됩니다.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은 이내 ‘아라바’ 곧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해까지 흘러가고, 놀랄게도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황홀한 광경에 그물을 낚는 어부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10절). 그야말로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에스겔의 눈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은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도 아름답게 살아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죽음으로 그을린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자 풍요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2.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떠올리며, 비전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4:5~7,12 ⁵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⁶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⁷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¹²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9

마가복음 13:14~27

화요일

오늘의 찬송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속으로

- 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대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tanding where it does not belong - let the reader understand -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 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Let no one on the roof of his house go down or enter the house to take anything out,

- 16 밭에 있는 자는 겹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지어다

Let no one in the field go back to get his cloak,

- 17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How dread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18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Pray that this will not take place in winter,

19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because those will be days of distress unequalled from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world, until now - and never to be equaled again,

20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If the Lord had not cut short those days, no one would survive.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whom he has chosen, he has shortened them.

21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At that time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Christ!' or, 'Look,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perform signs and miracles to deceive the elect - if that were possible.

13:22 이적
또는 표적

- 23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So be on your guard; I have told you everything ahead of time.”
- 24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But in those days, following that distres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 26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At that time men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
- 27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And he will send his angels and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heaven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주님이 깨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14~22).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13:4) 주님은 ‘시기’와 ‘징조’에 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미혹하는 자의 속임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편, 본 단락에는 일어날 징조를 둘러싼 묘사가 보다 자세하게 이어지는데 ‘그때’, ‘그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 ‘택하신 자’ 곧 하나님의 자녀를 둘러싼 박해와 핍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22절).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하시겠다고 맹세하셨으니, 택하신 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으며 모든 일에 깨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20절). 모든 일을 미리 알려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 이미 그러나 아직!(23~27)

‘그때에’,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날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이 한순간에 어두워지는가 하면, 달은 그 빛을 잃고 하늘에 있어야 할 별들이 우주수 떨어집니다(24~25절). 말문을 막히게 만드는 묘사는 말 그대로 새로운 나라가 얼마나 새로울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기존의 생각과 관념이 깨어지고, 모든 지각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자 흠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입니다(26~27절).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 말씀에 신실했던 자녀들의 삶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13:10). 그러면서도 이후 14장부터 기술되는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새 것이 날 수 없다는 역설의 진리가 십자가 위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수님이 전하신 ‘깨어 있는’ 삶은 성령님과 교통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한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받았듯이(14:6),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2.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일은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전존재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당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7:10~12 ¹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 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¹¹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¹²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0

마가복음 13:28~37

수요일

오늘의 찬송 336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씀 속으로

- 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Now learn this lesson from the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 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Even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you know that it is near, right at the door.

-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I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 3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32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Be on guard! Be alert! You do not know when that time will come.

34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It's like a man going away: He leaves his house and puts his servants in charge, each with his assigned task, and tells the one at the door to keep watch.

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when the owner of the house will come back - whether in the evening, or at midnight, or when the rooster crows, or at dawn.

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If he comes suddenly, do not let him find you sleeping.

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13:29 인자가
또는 때가

13:33 있으라
어떤 사본에, 있어 기
도하라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백성입니다(28~31).

성전이 무너질 시기와, 시기를 둘러싼 징조를 예고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비춥니다. 본 단락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시기'에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흥미롭게도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치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28절) 한때 열매 없이 잎사귀만 앙상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다르게 이곳에서는 잎이 막 돋기 시작하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알려줍니다(11:12-14). 자연스레 나무에 맺힐 열매는 얼마나 될지 궁금중이 일어나는 순간에 놀랍게도 문 가까이에 이르러 열매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 묘사됩니다(29절). 그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다름 아닌 만국에 흩어져 복음을 증언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약속대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온 그들에게 영광스런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2. 예수님은 아버지와 끊어지기를 두려워하셨습니다(32~37).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32절) 13장 내내 깨어 있기를 부탁하시며 열매를 찾으실 날이 속히 임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신비롭게도 예수님조차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따라 아버지의 주권에 순종하여 살아오신 삶이 목상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이러한 배경에서 깨어 있는 삶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날이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약속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아버지와의 연합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신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3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사방에서 모아지는 택함받은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나를 찾으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잠잠히 머무릅시다.
2.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깨어 있는' 삶에 관하여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3:24~28 ²⁴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²⁵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²⁶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뉘의 전부이십니다. ²⁷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²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1

마가복음 14:1~11

목요일

오늘의 찬송 315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말씀 속으로

- 1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Now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ere only two days away,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some sly way to arrest Jesus and kill him.

- 2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But not during the Feast,” they said, “or the people may riot.”

- 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While he was in Bethany, reclining at the table in the home of a man known as Simon the Leper, a woman came with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made of pure nard. She broke the jar and poured the perfume on his head.

- 4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Some of those present were saying indignantly to one another, “Why this waste of perfume?”

-
-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It could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a year's wages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And they rebuked her harshly.

- 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Leave her alone," said Jesus. "Why are you bothering he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and you can help them any time you want.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 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 하였느니라

She did what she could. She poured perfume on my body beforehand to prepare for my burial.

-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I tell you the truth,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14:3 식사하실 때에
2:15 난하주를 보라

14:5 데나리온
은전의 명칭

11

—
목

- 10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Then Judas Iscariot, one of the Twelve, went to the chief priests to betray Jesus to them.

- 11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They were delighted to hear this and promised to give him money. So he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him ov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한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1~9).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기술되는 시점에서 성경은 무교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1절) 유월절을 시작으로 칠일 간 진행되는 무교절은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1절은 구약 시대 일어난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완성 될 시기가 다가옴을 암시합니다. 한편, 주님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성행하는데,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유다의 배반이 예고되는 사이에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3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녀는 자신이 가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어렵게나마 알았을 믿음의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9절)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녀가 ‘좋은’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6절).

2.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10~11).

여인을 칭찬하시는 주님과 다르게 어떤 이들은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따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관습을 지켰다면, 값비싼 옥합 하나로 많은 이를 배부르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까닭입니다(4~5절). 나름대로 자신이 여인보다 의롭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을 상황이 상상되는 데 이어 이번에는 주님을 팔고자 한 가롯 유다의 속마음이 버젓이 드러납니다(10절).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한 섬김에 값을 매기며 무게를 다는 동안, 제자 중 한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열심을 낸 셈입니다(11절). 그럼에도 이토록 어지럽고 혼돈스런 땅 위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갈 것이라는 복음의 소식이, 부정한 나병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만 같습니다(3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대조되는 유다의 이야기는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십자가의 길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2. 값을 매기고 흥정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6:8~9,16~17 ⁸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⁹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¹⁶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¹⁷ 내가 주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2

마가복음 14:12~26

—
금요일

오늘의 찬송 279 인애하신 구세주여

말씀 속으로

- 12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hen it was customary to sacrifice the Passover lamb, Jesus' disciples asked him, "Where do you want us to go and make preparations for you to eat the Passover?"

- 13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So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telling them, "Go into the city, and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 Follow him,

- 14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Say to the owner of the house he enters, "The Teacher asks: Where is my guest room, where I may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
- 15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He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furnished and ready. Make preparations for us there.”

- 16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The disciples left, went into the city and found things just as Jesus had told them. So they prepared the Passover.

- 17 저물때 그 열둘을 데리시고 가서

When evening came, Jesus arrived with the Twelve.

- 18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While they were reclining at the table eating,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one of you will betray me - one who is eating with me.”

- 19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They were saddened, and one by one they said to him, “Surely not I?”

14:18 **앉아 먹을 때에**
2:15 난하주를 보라

- 20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It is one of the Twelve,” he replied, “one who dips bread into the bowl with me.”

- 21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겐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The Son of Man will go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But woe to that man who betrays the Son of Man!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he had not been born.”

-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it; this is my body.”

- 23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 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I tell you the truth,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in the kingdom of God.”

26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의 순종 안으로 초대됩니다(12~21).

무교절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만찬을 준비할 장소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 사람을 보내 시며 부탁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13절)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도록 명하신 것과 너무도 흡사한 이 장면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신 주님을 비춥니다.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선 제자들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16절). 날이 저물고 새날에 대한 기대가 차오르는 무렵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18절) 이 한마디에 유다의 배신을 아신 주님과, 그럼에도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이 가능했던 근원을 설명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 한 주님의 순종이 자신을 변호하는 제자들을 이후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2. 주님이 비밀을 알려 주십니다(22~26).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말은 무성하지만 제자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는 밤이 곧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붙잡히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강권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새겨집니다. 그 밤에 주님은 오천 명의 무리와 사천 명의 무리를 먹이셨듯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둘러선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22,24절)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문이 활짝 열린다는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서 찬미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26절). 다만 제자들로 먼저 듣게 하신 말씀이 그들을 십자가의 길 안으로 이끌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게 하였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2. 훗날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 때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증언하며 삽니다. 동일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은 나는 예수님을 자랑 삼아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1:1~8 ¹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²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에서 온다. ³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 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⁵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⁶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⁷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 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⁸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3

에스겔 47:13~23

토요일

오늘의 찬송 381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말씀 속으로

- 1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hese are the boundaries by which you are to divide the land for an inheritance amo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with two portions for Joseph.

- 14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You are to divide it equally among them. Because I swore with uplifted hand to give it to your forefathers, this land will become your inheritance.

- 15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This is to be the boundary of the land: On the north side it will run from the Great Sea by the Hethlon road past Lebo Hamath to Zedad,

-
- 16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핫디곤이라

Berothah and Sibraim (which lies on the border between Damascus and Hamath), as far as Hazer Hatticon, which is on the border of Hauran,

- 17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는 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 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The boundary will extend from the sea to Hazar Enan, along the northern border of Damascus, with the border of Hamath to the north. This will be the north boundary.

- 18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 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On the east side the boundary will run between Hauran and Damascus, along the Jordan between Gilead and the land of Israel, to the eastern sea and as far as Tamar. This will be the east boundary.

- 19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트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On the south side it will run from Tamar as far as the waters of Meribah Kadesh, then along the Wadi of Egypt to the Great Sea. This will be the south boundary.

- 20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On the west side, the Great Sea will be the boundary to a point opposite Lebo Hamath. This will be the west boundary.

- 21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 하라

You are to distribute this land among yourselves according to the tribes of Israel.

- 22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You are to allot it as an inheritance for yourselves and for the aliens who have settled among you and who have children. You are to consider them as native-born Israelites; along with you they are to be allotted an inheritance among the tribes of Israel.

- 23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n whatever tribe the alien settles, there you are to give him his inheritanc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로움이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13~20).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수목이 무성하고, 사해에 생물이 살아나는 기적이 보였습니다. 이 환상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비추며 하나님 없이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 단락은 땅 분배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며 생명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터전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편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래에 얻게 될 땅에 대한 약속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리라 짐작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나뉠의 원칙을 제시하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듯, 이스라엘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며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러하듯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이 선행합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14절)

2.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향합니다(21~23).

앞선 단락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야 할 원칙을 들려주며, 모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 줍니다. 이제 또 다른 원칙이 소개됩니다.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 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22절) 이스라엘이야말로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을 배려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 없이 대하라는 여호와와 권면은 거저 받은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성도’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함께 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을 세워 갑시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은혜를 먼저 베풀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1:1~5,10 ¹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² 주님께서 하시니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³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⁴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공훈이 많으시다. ⁵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¹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하나님의 그림

글 박상용 (집사)

저희 아버님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라는 희귀 혈액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셨습니다. 완치될 수 없는 병이지만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합심 기도와 철저한 본인 관리로 의사 선생님이 예측한 기간보다 훨씬 오래, 나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곁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시점에서 항암 치료는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가실 때마다 가족들이 번갈아 동행했는데, 가끔은 모자란 혈액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수혈 치료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곁을 지키면서 와이프 흉도 보고, 가족 걱정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깨달은 삶에 대한 생각, 종교와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물으며 결혼 후 10년 동안 나눈 얘기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온전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버님의 죽음을 공동여 준비한 오랜 시간이 도리어 아버님의 부재에 대한 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이 찾아오 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스물 한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더 이상의 치료마저 무의미해질 무렵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마지막 9개월을 보내셨습니다.

수혈을 안 받으시면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상황이라 입원 후반기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혈소판 두 팩을 수혈 받으셔야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혈소판이 상처가 나면 피가 안 나게 막아 주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수혈 받는 혈액 중 혈소판이 제일 구하기 어려운 혈액이라는 것을, 대형 병원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전혈(빨간피) 혈액 다섯 팩을 합쳐야 혈소판 한 팩이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 혈소판 수치가 오르게 해 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응답이 ‘헌혈’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베푼 선한 의지로 아버님이 살아가실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제가 헌혈할 때마다 아버님의 혈소판 수치가 조금이라도 오르게 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역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 년에 스물 네 번의 헌혈을 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하나님께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혈을 오십 번 하면 주는 헌혈 금장을 받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사랑한 기억도 납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은 소망교회에 대한 감사의 과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준비되기 전부터 오시기 시작한 교회 분들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권사회, 여전도회 분들은 끊임없는 기도로 위로해 주셨고, 경조부 분들은 예수님을 대하듯 너무나 따뜻하고 정중하게 아버님을 염습해 주셨으며, 마지막 장지에서도 교회 분들과 함께 하나님 곁으로 아버님을 보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헌혈을 하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가, 장례식장에서 함께 슬퍼하고 기도해 주시던 진심이, 정성 다해 아버님을 닦아 주시고 정중하게 수의를 입혀 주시던 손길, 소망교회를 향한 감사이자 기적입니다.

2020년 여름 사정상 지방에 내려오게 되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구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이프를 통해 헌혈증 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입원 초기에 “이거 제가 헌혈한 걸로 계산하세요.”라고 짐짓 잘난 체 하면서 병원비 결제할 때 쓴 10장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소중히 갖고 있는 헌혈증 49장은 아버님에 대한 연민의 기억입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버님이 평생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소망교회에 이 연민의 기억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완벽한 마무리라고 생각되어 한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혈증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떤 길로 이끄시려고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아버님이 평생 동안 사랑하신 소망교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14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5/14~20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 119:10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5

에스겔 48:1~14

월요일

오늘의 찬송 406 곤한 내 영혼 편히 쉬 곳과

 말씀 속으로

- 1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 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These are the tribes, listed by name: At the northern frontier, Dan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follow the Hethlon road to Lebo Hamath; Hazar Enan and the northern border of Damascus next to Hamath will be part of its border from the east side to the west side,

- 2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Asher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Dan from east to west,

- 3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Naphtali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Asher from east to west,

- 4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Manasseh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Naphtali from east to west,

5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
이요

Ephraim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Manasseh from east to west.

6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Reuben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Ephraim from east to west.

7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
요

Judah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Reuben from east to west.

8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이만 오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
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Bordering the territory of Judah from east to west will be the portion you are to present as a special gift. It will be 25,000 cubits wide, and its length from east to west will equal one of the tribal portions; the sanctuary will be in the center of it.

9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The special portion you are to offer to the LORD will be 25,000 cubits long and 10,000 cubits wide.

48:9 만 척이라

칠십인 역본에는, '이만'
척이라

- 10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This will be the sacred portion for the priests. It will be 25,000 cubits long on the north side, 10,000 cubits wide on the west side, 10,000 cubits wide on the east side and 25,000 cubits long on the south side. In the center of it will be the sanctuary of the LORD.

- 11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This will be for the consecrated priests, the Zadokites, who were faithful in serving me and did not go astray as the Levites did when the Israelites went astray.

- 12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It will be a special gift to them from the sacred portion of the land, a most holy portion, bordering the territory of the Levites.

- 13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Alongside the territory of the priests, the Levites will have an allotment 25,000 cubits long and 10,000 cubits wide. Its total length will be 25,000 cubits and its width 10,000 cubits.

14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They must not sell or exchange any of it. This is the best of the land and must not pass into other hands, because it is holy to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땅의 분배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핵심 원리가 소개됩니다(1~7).

에스겔 목상이 땅 분배에 관한 규정을 살피는 것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새 성전에 관한 설계도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바벨론에 잡혀 온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차원을 넘어 그들이 일구어 갈 새로운 삶에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조건을 전하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 제사장, 레위인의 땅이 기술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1-3절은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 지파,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셀 지파의 땅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땅이 규정되고, 르우벤과 유다 지파에게 돌아갈 기업이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5-7절).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땅을 상속받은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야의 탄생을 엿보게 되는가 하면, 중심에 위치한 성소는 하나님과 하나된 이스라엘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2.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8~14).

성소를 중심으로 북쪽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이른바 ‘거룩한 땅’ 규정이 소개될 참입니다. 성소가 속한 거룩한 땅에 관한 규정은 이미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45:1~8). 그런 점에서 본 단락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은 거룩한 땅 중앙에 위치하는 성소를 비추고, 이어지는 9-12절은 성소를 포함하는 제사장의 땅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의 기업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게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맡겨 준 직책을 지킨 자들이다.”(11절) 여호와를 향하여 신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증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한편, 제사장의 땅과 동일한 길이와 너비의 땅이 레위인에게도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로 소유를 구별해서 지키도록 명하십니다(14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성소를 중심으로 땅의 분배가 일어나는 과정은 하나님과 연합된 나라의 재건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곧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묵상하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2.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삶의 축복을 사모하며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당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5:1~4 ¹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²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³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⁴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6

마가복음 14:27~31

화요일

오늘의 찬송 295 큰 죄에 빠진 나를

 말씀 속으로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You will all fall away,” Jesus told them,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But after I have 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Peter declared, “Even if all fall away, I will not.”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today -yes, to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yourself will disown me three times.”

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
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But Peter insisted emphatically,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s said the same.

14:27 속 13:7

14:27 나를 버리리라
또는 나로 말미암아 실
족하리라

14:29 버릴지라도
헬리어 실족할지라도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약속됩니다(27~28).

우리에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저물때’ 곧 시간상으로는 새벽이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에 행해진 만찬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미래를 암시합니다. 비로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사건의 의미가 놀랍게 완성되는 순간에 뜻밖에도 성경은 배반하는 제자들을 예고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27절) 혹은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고 해석되는 이 구절은, 값을 받고 주님을 판 인물은 유대이지만 실상 그 안에서 모두가 주님을 배반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릴리에서 배반자들을 맞이합니다(28절). 이때에 ‘갈릴리’는 문자 그대로 지명을 지칭하기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 노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값없이 열린 구원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29~31).

당시에 갈릴리는 심판받고 버림받은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곳을 꼭 집어 언급하시며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는 말씀 안에서 배신한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려는 사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이유인지 무척이나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31절) ‘다’ 버릴지라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확신에 찬 그의 부정은 결국 강한 긍정으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어두운 땅 갈릴리를 찾아가신 사랑의 주님이 등 돌리고 떠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 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 다시 말해 완벽하게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이후에는 띠를 띠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은혜가 베드로는 물론이고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듯, 역설적으로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 날을 암시합니다(31절; 14:10).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가진 부정의 생각, 부정의 언어, 부정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은혜에 인애와 진실로 함께하기를 사모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6~11 ⁶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⁷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⁸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⁹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¹⁰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¹¹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7

마가복음 14:32~42

수요일

오늘의 찬송 9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말씀 속으로

- 32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They went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pray."

-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 34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he said to them. "Stay here and keep watch."

- 35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 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to the ground and prayed that if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36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Abba, Father,” he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37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Simon,” he said to Peter, “are you asleep? Could you not keep watch for one hour?”

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39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Once more he went away and prayed the same thing.

40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When he came back, he again found them sleeping, because their eyes were heavy. They did not know what to say to him.

17

—
수

41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Returning the third time, he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Enough! The hour has come. Look,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42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겐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32~36).

예수님이 내어 주신 삶과 피로 인하여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앞에서 제자들은 어쩐지 뒷걸음치기도 합니다. 그들의 현실이 하나는 유다의 배신으로,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부인으로 나타나며 두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이 유월절 만찬의 앞과 뒤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도망치려는 그들을 아신 주님이 이번에는 겐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내리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하신 발걸음 사이로 그들을 영원히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먼저는 아들 되신 주님을 적시며 순종의 잔을 마시도록 이끌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36절) 아버지를 향한 외침은 이내 동산에 함께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 번이나 깨우며 주님이 열어 가시는 길 안으로 들어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34절)

2. 제자들의 새로운 삶이 약속됩니다(37~42).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명칭 ‘겐세마네’는, 이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보이신 모습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신 열정이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와 끊어지는 죽음의 잔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 한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전히 깊은 잠을 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37절) 흥미롭게도 마가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와 달리 유독 시몬 베드로를 언급하며,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떳떳하게 외친 고백 뒤에 숨겨진 그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를 강렬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내려집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42절) 이제 내가 십자가의 잔을 들겠으니 너희는 영원히 살겠고, 이 문 안으로 많은 자들을 초청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완전히 잠에 빠진 제자들과 달리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비교하며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십자가 너무 부활의 길을 암시하는 4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3~8 ³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 주신다. ⁴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⁵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⁶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취 주십시오. ⁷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 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큼니다. ⁸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8

마가복음 14:43~52

목요일

오늘의 찬송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말씀 속으로

43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Just as he was speaking, Judas, one of the Twelve, appeared. With him was a crowd armed with swords and clubs, sent from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4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Now the betrayer had arranged a signal with them: "The one I kiss is the man; arrest him and lead him away under guard."

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Going at once to Jesus, Judas said, "Rabbi!" and kissed him.

46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The men seized Jesus and arrested him.

47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Then one of those standing near drew his sword and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utting off his ear.

48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Am I leading a rebellion,” said Jesus, “that you have come out
with swords and clubs to capture me?”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
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
니라 하시더라

Every day I was with you,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and
you did not arrest me. Bu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Then everyone deserted him and fled.

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홰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A young man, wearing nothing but a linen garment, was
following Jesus. When they seized him,

52 베 홰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he fled naked, leaving his garment behi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유다의 배반이 이루어집니다(43~50).

“일어나라 함께 가자”, 대속의 길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그로 인하여 살아날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비전이 그려집니다. 이 황홀하고도 멋진 그림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비극적이게도 열두 제자 중 배신자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의 곁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함께하며 손에는 검과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맞춘 군호에 따라 유다가 입을 맞추자 순식간에 무리들이 주님을 사로잡습니다. 가장스런 입맞춤을 맞으면서 기꺼이 유다의 배신을 눈감고 계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어쩌면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시지 않는 모습 자체가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고, 은밀한 중에 깨닫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돌이키게 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이 귀가 잘린 대제사장 하인을 고치시는 손길에도 깊이 묻어납니다(눅 22:51). 잡히시는 그 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 안에 있었다는 믿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2. 배반의 밤, 허물을 덮는 사랑이 계시됩니다(51~52).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들을 보며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도망하였다는 구절은 배신의 밤에 주님이 느끼셨을 비장함을 더하는가 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줄행랑치는 제자들의 뒷모습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50절). 사실 이 진리는 주님을 세 번 배반할 베드로의 모습과, 겹세마네에서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을 세 번 깨우시는 모습 가운데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 모를 한 청년이 몸에 두른 베 흠이불을 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간 이야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절정에 이릅니다. 학자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보이는데, 익명으로 기록된 그가 마가일 거라는 추측에 많은 동의가 따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요한복음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친 제자가 베드로임을 밝히고, 누가복음은 잘린 귀를 고치시는 장면을 전하며 제자를 부르신 주님이 또한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신다고 전합니다. 그 사랑에 눈 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순종은 인간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으로 구현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3:8~12,21 ⁸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⁹ 한 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 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¹⁰ 주님은, 못 나라의 도모를 흠으시고, 못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¹¹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¹²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²¹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19

—
금요일

마가복음 14:53~65

오늘의 찬송 252 나의 죄를 씻기는

 말씀 속으로

- 53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They took Jesus to the high priest, and all the chief priests, elders and teachers of the law came together.

- 54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더라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in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There he sat with the guards and warmed himself at the fire.

-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Sanhedrin were looking for evidence against Jesus so that they could put him to death, but they did not find any.

- 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Many testified falsely against him, but their statements did not agree.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Then some stood up and gave this false testimony against him: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라 하되

“We heard him say, ‘I will destroy this man-made temple and in three days will build another, not made by man.’”

59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Yet even then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60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나
하되

Then the high priest stood up before them and asked Jesus, “Are you not going to answer? What is this testimony that these men are bringing against you?”

61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But Jesus remained silent and gave no answer.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One?”

14:54 불을 쬐더라
헬라어 빛을 쬐더라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I am,” said Jesus.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The high priest tore his clothes. “Why do we need any more witnesses?” he asked.

64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You have heard the blasphemy. What do you think?” They all condemned him as worthy of death.

65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Then some began to spit at him; they blindfolded him, struck him with their fists, and said, “Prophesy!” And the guards took him and beat hi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밤중에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섭니다(53~59).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배신을 기점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속도가 납니다. 결국 무리들에 이끌리어 서신 곳은 ‘공회’ 곧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참석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땅히 죄목이 밝혀져야 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내뱉는 증언이 서로 다르기만 합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맞지도 않는 증언이 오고 가는 그 밤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랐고, 대제사장 집 안 뜰에 잠시 몸을 피하며 불을 쬐고 있습니다. 어둔 밤을 밝히는 햇불만이 진실이고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듯 ‘밤중에’ 소집된 공회가 사뭇 눈길을 끕니다. 훗날 베드로는 숯불 위로 생선을 굽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배신의 밤을 아프도록 떠올렸을 듯합니다.

2. “내가 그니라”(60~65)

온통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이 일어나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60절) 언뜻 주님을 위한 말처럼 다가오지만 야유와 조롱에 불과한 말이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심문이 이어집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61절) 그러자 놀랍게도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62절)라는 주님의 대답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서로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외치며 거짓선지자 노릇을 하는 중에 드디어 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이 사방에서 정죄를 받고, 침을 받고, 주먹질을 당하시면서 죽음에서 시작된 복음의 비밀이 함께 전하여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베드로 앞에 놓인 불은 그의 삶을 비추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예고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사모합니다.
2.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라고 밝힌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능욕받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1:1~3 ¹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²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은 아이와 같습니다. ³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5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The remaining area, 5,000 cubits wide and 25,000 cubits long, will be for the common use of the city, for houses and for pastureland. The city will be in the center of it

- 16 그 크기는 북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남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동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며

and will have these measurements: the north side 4,500 cubits, the south side 4,500 cubits, the east side 4,500 cubits, and the west side 4,500 cubits,

- 17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남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동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서쪽으로 이백오십 척이며

The pastureland for the city will be 250 cubits on the north, 250 cubits on the south, 250 cubits on the east, and 250 cubits on the west,

-
- 18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결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결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What remains of the area, bordering on the sacred portion and running the length of it, will be 10,000 cubits on the east side and 10,000 cubits on the west side. Its produce will supply food for the workers of the city.

- 19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The workers from the city who farm it will come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 20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도 이만 오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반듯할 것이니라

The entire portion will be a square, 25,000 cubits on each side. As a special gift you will set aside the sacred portion, along with the property of the city.

- 21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몫들과 연결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What remains on both sides of the area formed by the sacred portion and the city property will belong to the prince. It will extend eastward from the 25,000 cubits of the sacred portion to the eastern border, and westward from the 25,000 cubits to the western border. Both these areas running the length of the tribal portions will belong to the prince, and the sacred portion with the temple sanctuary will be in the center of them.

20

—
토

22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So the property of the Levites and the property of the city will lie in the center of the area that belongs to the prince. The area belonging to the prince will lie between the border of Judah and the border of Benjami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성읍의 땅에 다양한 지파가 모입니다(15~20).

성소를 중심으로 열두 지파, 제사장, 레위인에게 분배될 땅이 기술되었습니다(48:1~14). 내용을 살피며 우리는 첫째, 성소가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둘째, 위치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된 땅을 명시한 구절에 비추어 하나님 안에서 남과 북이 연합된 이스라엘 재건을 꿈꾸시는 여호와와 소망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본 단락은 거룩한 땅이라 불린 곳 한편에 속한 ‘성읍’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읍이라고 칭함받는 이 땅은 각 지파에서 선별된 일꾼들이 거주하며 경작하던 곳으로 짐작되는데, 경작을 통하여 성전 봉사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파와 상관없이 성소 가까이 지내면서 땅을 경작하는 그들의 손길 안에서 백성이 다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새어나오는 듯합니다.

2. 새로운 땅에 백성의 새로운 삶이 담깁니다(21~22).

‘성읍’이라 불린 땅의 소개와 함께 성전 봉사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묘사된 후 이번에는 ‘군주’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군주가 분배받을 땅은 거룩한 땅의 영역 중에서도 좌우편에 위치하며, 앞서 언급된 모든 영역을 감싸는 형태를 보입니다. 즉 군주가 차지하게 될 땅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성읍에서 봉사하는 자들보다 넓다는 점을 암시하는가 하면, 기업이 큰 만큼 감당해야 할 역할도 막중하다는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주로 하여금 넓은 땅을 소유하게 하신 데에는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45:8). 새로운 땅에서는 억압과 압제가 사라지고 모두의 생명이 보호받는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분배받을 땅을 펼쳐 보이시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황포를 일삼는 악행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왕이 으뎌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사뭇 눈길을 끄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고국으로의 귀환과 새 성전에 관한 예고는 놀랍게도 지파 간의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품으며 마무리 되어 갑니다. 말씀의 흐름을 살피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앞에서 하나님은 왕에게 책임을 더하십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어지러운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바른 정치를 펼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중보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23~26,31 ²³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²⁴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²⁵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²⁶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³¹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니언, 광야 여행

글 홍성민 (부목사)

광야는 양면성을 지닌 장소이다. 광야에 낯선 이방인들에게는 낭만적인 장소로 여겨질지 몰라도,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구약에 약 270번 나온다. 가혹하고 척박한 조건으로 인해 사람, 동물, 식물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광활하고 탁 트인 열린 공간이다. 그런 만큼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련되고 순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얻는 장소, 일상생활의 산만함에서 물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 있는 피난처와 갱신의 장소이다.

2007년 초막절 휴가 때로 기억된다. 이스라엘 대사관님과 한인교회 성도들 약 28명이 광야 투어를 나섰다. 미지의 땅으로 나서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여행 전날 밤을 설치게 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여행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도로 번호를 잘 기억한 후에 예루살렘 여행을 시도해 보아도 좋겠다.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베들레헴에서 어린양 갈비 몇 짝을 장본 후, 60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헤브론^{Hebron}과 마온^{Ma'on} 옆을 지나, 국도로 접어들어 가롯 유다의 고향인 그리웃^{Tel Greot}과 아랏 유적지^{Tel Arad Temple}를 지나, 25번 도로를 따라 디모나^{Dimona} 아래 예로함^{Yeruham}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하갈의 우물(창 16장)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김밥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예로함을 출발, 국도 225번을 타고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거대한 분화구에 들어설 때의 경이로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Har Avnon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경은 감탄을 자아냈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했다. 히브리어로 <마크테쉬 가돌^{Makhtesh Gadol}>이라 불리는 '큰 분화구'를 향해 차량은 돌진했고, 지그재그 길을 따라 마침내 바닥에 다다랐다. 분화구 바닥을 가로질러 고대 로마 길을 볼 수 있는 227번 국도로 빠져나가면 <마크테쉬 카탄

Makhtesh Katan, 작은 분화구>과 함께 드디어 성경에 언급되는 이스라엘 남쪽 경계를 설명하는 지명 중 하나인 <아크라빔>(전갈^{scorpion}을 의미) 비탈(민 34:4, 아그랍빔 언덕)의 천연의 자연 경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리고 저 멀리 호르 산^{Hor HaHar}이 눈앞에 아른아른 구름 속에 펼쳐진다.

사해 남쪽 90번 국도를 통해 요르단을 옆으로 계속 남쪽으로 향했다. 13번 도로와 만나는 점에서 광야 내부로 본격적으로 접어든다. 바란 광야의 시작이다. 다시 40번 국도를 따라 좀 더 광야 내부로 들어간다. 약 14km의 광야가 직선 도로이다. 여러분의 차량만 좋다면 최고 시속을 뽑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나 나라면 속도를 즐기기보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야의 절경들로 인해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직선길이 시작되기 전에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에 들어섰다. 사륜구동이 능력을 발휘할 때다. 마침내 아다 캐니언^{Ada Canyon}에 짐을 풀고, 브엘 아다 광야 산 등산에 올랐다. 약 1시간 반 정도의 오르막을 오르면, 눈앞 사방에 바란 광야가 드디어 펼쳐진다.

우리는 일몰 전에 서둘러 텐트를 치고 다함께 둘러 앉아 <쎄테르>를 하며, 최인식 교수님의 인도로 성찬식을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로서 대사님이 하시는 업무와 여러 고충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들을 이야기했다.

모닥불이 잦아들고 밤 11시가 훌쩍 넘은 무렵, 나는 광야를 더 느끼고 싶어 홀로 광야 언덕에 올랐다. 산 중턱 2/3 지점에 오르자 저 아래 천막들이 모닥불과 함께 나지막이 보인다. 그 지점에서 돛자리를 깔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가족과 미래, 당시 섬기던 교회와 부서, 그리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한 기억이 난다. 그 응답이었는지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텐트를 정리하고 <마크테쉬 람몬^{Makhtesh Ramon, 거대 분화구}>으로 향했다. 캠프 사이트에서 지프차로 환승하고 약 5시간의 광야 탐험을 진행했다. 북동쪽 방향으로 나바티안 왕국의 향료길을 따라 그 흔적들을 추적하며, 모이^{Khirbet Moah}를 통해 오후 3시가 되어 빠져나왔다. 잠시 레스토랑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대하며 뜨거운 열기를 식혔다. 이후 출발점 <마크테쉬 람몬>으로 돌아와 지상 최고의 라면을 끓여 먹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

광야! 그 광대함을 잊을 수 없다!

인생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시 136:16)

21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5/21~27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시 119:130)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

월요일

에스겔 48:23~35

오늘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말씀 속으로

23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
요

“As for the rest of the tribes: Benjamin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extend from the east side to the west side.

24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
이요

Simeon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Benjamin from east to west.

25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잇사갈의 몫
이요

Issachar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Simeon from east to west.

26 잇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의 몫
이요

Zebulun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Issachar from east to west.

27 스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Gad will have one portion; it will border the territory of Zebulun from east to west.

28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트리바카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The southern boundary of Gad will run south from Tamar to the waters of Meribah Kadesh, then along the Wadi of Egypt to the Great Sea.

29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This is the land you are to allot as an inheritance to the tribes of Israel, and these will be their portions,” declares the Sovereign LORD.

30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사천오백 척 이라

“These will be the exits of the city: Beginning on the north side, which is 4,500 cubits long,

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the gates of the city will be named after the tribes of Israel. The three gates on the north side will be the gate of Reuben, the gate of Judah and the gate of Levi.

- 32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On the east side, which is 4,500 cubits long, will be three gates: the gate of Joseph, the gate of Benjamin and the gate of Dan,

- 33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On the south side, which measures 4,500 cubits, will be three gates: the gate of Simeon, the gate of Issachar and the gate of Zebulun,

- 34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On the west side, which is 4,500 cubits long, will be three gates: the gate of Gad, the gate of Asher and the gate of Naphtali.

- 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The distance all around will be 18,000 cubits. And the name of the city from that time on will be: "The LORD is There."

48:35 여호와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
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보호를 받습니다(23~29).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47:21)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48장 1-7절은 북쪽 땅에 먼저 주목하며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될 지파들을 일일이 언급합니다. 본 단락은 남은 다섯 지파의 땅을 소개하며, 모든 지파로 하여금 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한편, 북쪽 땅에서는 유다 지파가 거룩한 땅과 가장 근접한 지역을 상속받는다면,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성소와 가까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차례로 시므온, 잇사갈, 스블론, 갓의 땅이 지명되면서 모두에게 기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은혜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성읍 출입문에도 새겨지며, 바벨론에 끌려온 지금이나 해방되어 살아갈 새로운 나라에서나 영원토록 백성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2. 하나님의 정의는!(30~35)

환상 중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면 이전보다 크신 영광으로 새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 환상은 마침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절정을 이루며, 에스겔은 은혜로운 칭호를 약속 받습니다. ‘여호와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놀라운 이름이 붙여진 성읍을 눈으로 담고,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지만, 백성이 스스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악으로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출입을 지켜 주시겠다는 보다 광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약속 안에서 에스겔은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질문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리하여 삶을 다시금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동일하게 살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집시다.
2.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6:5~8 ⁵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⁶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⁷ 주님께서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⁸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23

학개 1:1~6

화요일

오늘의 찬송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말씀 속으로

-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In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to Zerubbabel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and to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These people say, “The time has not yet come for the LORD’s house to be built.”

- 3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Is it a time for you yourselves to be living in your paneled houses, while this house remains a ruin?”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Now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You have planted much, but have harvested little. You eat, but never have enough. You drink, but never have your fill. You put on clothes, but are not warm. You earn wages, only to put them in a purse with holes in i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말씀이 이스라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1~2).

‘축제 같은’ 의미를 지닌 ‘학개’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비록 2장 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학개서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치하를 배경으로 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쪼개진 후에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역사의 추가 바벨론을 향해 점점 기우는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페르시아 국가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트리셨고, 약속대로 유다 백성을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이때에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이 이방의 국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여호와와 무궁한 지혜와 섭리 앞에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어진 사마리아인의 음모로 인하여 성전 재건은 이름만 무색한 채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잠들었던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깨우기 시작합니다.

2. 하나님이 근본적인 회복을 명하십니다(3~6).

여호와와 음성이 유다의 총독, 대제사장, 백성에게 다가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모두를 깨우시는 말씀 속에 사실은 그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가르침이 은연중에 전해집니다. 사마리아인의 방해를 강조한 에스라서 4장과 달리 학개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은 백성으로 그들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여호와와 비전에 동참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분과 하나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메시지가 학개의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6절).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백성은 성전 재건이라는 원대한 계획은 뒷전으로 남겨 둔 채 제 집 짓기에 분주하기만 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무감각해진 그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어다”(5절) 여호와와 합한 마음에서 성전 재건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르시며 참 축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설명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감각함은 반복됩니다. 그 마음을 고발하며 시작하는 학개서를 따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2. 성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시며 근본적인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인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3:1~2,5~6 ¹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² 살아 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⁵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아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깊이 생각합니다. ⁶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Go up into the mountains and bring down timber and build the house, so that I may take pleasure in it and be honored,” says the LORD.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나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You expected much, but see, it turned out to be little. What you brought home, I blew away. Why?” declares the LORD Almighty. “Because of my house, which remains a ruin, while each of you is busy with his own house.

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Therefore, because of you the heavens have withheld their dew and the earth its crops,

11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I called for a drought on the fields and the mountains, on the grain, the new wine, the oil and whatever the ground produces, on men and cattle, and on the labor of your hand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7~8).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7절) 바벨론에서 귀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꿈에 그린 고국이지만, 막상 귀환하여 돌아온 백성의 삶이 마음처럼 평화롭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이유가 지도자를 비롯한 유다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깨우치시며,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근원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8절)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산에 직접 올라 나무를 베며 성전을 짓는 일에 실질적인 순종을 다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 하나님께 포기는 없습니다(9~11).

스스로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백성을 살리시는 축복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의 행위가 결국엔 축복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감각한 마음 곧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에서는 많은 것을 바라는 중에도 적은 것을 거둘 뿐이고, 좋은 목재로 거두어들이 집이 한순간에 흩어지기 마련입니다(9절).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제 집 일에만 정신없는 백성을 꾸우치고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을 멈추셨고 땅에는 가뭄이 들게도 하셨습니다(10~11절). 더 이상 소산을 내지 못하는 만물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오롯이 들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무서운 심판 이면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며, 유다를 향한 계획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와 영광이 전해 지고자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학개서는 하나님과 합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한편, 연합된 마음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루길 원하시는 일에 스스로 지체하거나 염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2.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안락한 삶은 한순간에 펼쳐지지 못합니다.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훈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훈련의 궁극적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3:8,10 ⁸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¹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Then Zerubbabel son of Shealtiel,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and the whole remnant of the people obeyed the voice of the LORD their God and the message of the prophet Haggai, because the LORD their God had sent him, And the people feared the LORD.

- 13 그때에 여호와와 그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와 그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그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Then Haggai, the LORD's messenger, gave this message of the LORD to the people: "I am with you," declares the LORD.

- 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So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Zerubbabel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and the spirit of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and the spirit of the whole remnant of the people. They came and began to work on the house of the LORD Almighty, their God,

15 그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더라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sixth month in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1:12 남은 모든 백성

학자들 중에는 이 표현
이 학개 시대 하나님께
신실했던 백성뿐만 아
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
씀 안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회개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12~13).

1-11절은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불의한 삶이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다른 소예언서와 달리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깨운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학개서의 주된 특징이기도 한데, 본 단락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 사이로 선지자 학개가 파송되며 여호와와 목소리를 전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12절). 무리 가운데 들어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13절) 마음의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들어서자 놀랄게도 지도자와 백성 가운데 경외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돌이킴의 역사란 불가능하고, 이 역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살아나는 축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14~15)

하나님은 행위를 살피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지도자나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을 품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이 목적이셨겠지만, 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만물이 한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본 단락은 이 일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14절)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영’을 뜻하는 단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무장된 백성의 실체가 성전이라는 해석이 따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하다는 듯 14절 후반부는 마음이 감동된 지도자와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힘썼다고 증언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말씀 한마디로부터 백성의 죽은 마음과 영이 살아났고, 오래도록 지체된 성전 재건이 착수되었다는 사실 앞에 잠잠히 머물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돌이키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며 살고 있습니까?
2.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위와 향락에 빠진 백성을 구원해 갑니다. 말씀에 비추어 오늘 내가 빠져나와야 할 두려움, 걱정, 근심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9:1~4,18 ¹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 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²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³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⁴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고 하였다.” (셀라) ¹⁸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 일곱째 달 곧 그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On the twenty-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Speak to Zerubbabel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to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and to the remnant of the people. Ask them,

- 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Who of you is left who saw this house in its former glory? How does it look to you now? Does it not seem to you like nothing?’

-
- 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But now be strong, O Zerubbabel,' declares the LORD. 'Be strong, O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Be strong, all you people of the land,' declares the LORD, 'and work. For I am with you,' declares the LORD Almighty.

-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This is what I covenanted with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And my Spirit remains among you. Do not fear.

-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n a little while I will once more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the dry land.

- 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I will shake all nations, and the desired of all nations will come, and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says the LORD Almighty.

27 보배가
사모하는 것이

26

—
금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declares the LORD Almighty.

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The glory of this present house will be greater than the glory of the former house,’ says the LORD Almighty. ‘And in this place I will grant peace,’ declares the LORD Almight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1~4).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완성될 성전의 미래 앞에서 지도자와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는 순결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초막절 곧 초막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중에서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1절). 그날에 하나님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을 차례로 부르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정확히 세 번 들려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4절) 더러는 폐허더미가 되어 버린 성전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솔로몬 시대 옛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심하며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듣게 하시며,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1:13)

2.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5~9).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니다. 성경은 바벨론 다음으로 페르시아 치하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두려움’으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백성이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모습은, 두려움이 지닌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힘입는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물론이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성전을 지으실 수 있지만 두려워하는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까닭입니다(8절). 성경은 가로막힌 것 하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향하여 ‘평강’하다 말하며, 연합된 관계를 상징하는 새 성전의 미래를 예고합니다(9절). 하나님과의 평안 안에서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5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전의 재건을 앞두고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구절을 묵상하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맡겨 주신 일들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감당합니까?
2.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과 영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4:1~3,13~15 ¹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²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못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³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¹³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 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¹⁴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¹⁵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 속으로

- 10 다리오 왕 제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 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ninth month, in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the prophet Haggai:

- 11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Ask the priests what the law says:

- 12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If a person carries consecrated meat in the fold of his garment, and that fold touches some bread or stew, some wine, oil or other food, does it become consecrated? The priests answered, ‘No.’

-
- 13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Then Haggai said, 'If a person defiled by contact with a dead body touches one of these things, does it become defiled?' 'Yes,' the priests replied, 'it becomes defiled.'

- 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Then Haggai said, 'So it is with this people and this nation in my sight,' declares the LORD. Whatever they do and whatever they offer there is defiled.

- 15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Now give careful thought to this from this day on - consider how things were before one stone was laid on another in the LORD's temple.

- 16 그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러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었느니라

When anyone came to a heap of twenty measures, there were only ten. When anyone went to a wine vat to draw fifty measures, there were only twenty.

27
—
토

- 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갸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I struck all the work of your hands with blight, mildew and hail, yet you did not turn to me,’ declares the LORD.

- 18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 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From this day on, from this twenty-fourth day of the ninth month, give careful thought to the day when the foundation of the LORD's temple was laid. Give careful thought:

- 19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 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Is there yet any seed left in the barn? Until now, the vine and the fig tree, the pomegranate and the olive tree have not borne fruit.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함이 죄입니다(10~14).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 뒤로 점점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시는 이도, 완성하시는 이도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여 줍니다. 이에 학개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이 할 일은 ‘행위를 살피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정한 마음을 따라 결단하는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나약한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13절) 너 나 할 것 없는 백성의 부정한 마음이야말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전을 방치해 온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되어 일하지 않는 ‘무감각함’을 들어 죄라고 알려 주십니다.

2. “그러나 오늘부터는!”(15~19)

학개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날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15절) 재앙이 땅을 덮자 제대로 된 소산 하나 얻기 어려운 현실을 상기시키신 후에 이어지는 단호한 음성은, 이전의 가슴 아픈 날을 회상하게 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17절) 하나님은 갖가지 재앙을 동반하면서까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원하셨지만, 그 마음에 응답한 사람은 정작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방치되어 감흥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성전을 통하여 그들의 죽은 믿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들어서자 고통스런 시간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19절)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만물이 하나되는 하나님의 꿈이 그려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날마다 말씀에 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 발길이 닿는 곳곳을 부요케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사모합니다.
2.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돌이키시자 이스라엘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에 상응하여 돌이키는 마음을 강조하는 학개서를 묵상하면서 들려주신 음성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9:1~7,24 ¹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살살이 살피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²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³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⁴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⁵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⁶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⁷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²⁴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수피아여학교 소강당 |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13

이 건물은 수피아여학교가 당시 학교 인가를 목적으로 1928년 신축한 소강당으로 광주에 남아 있는 체육 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1945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교사로도 사용한 바 있다. 이 건물은 수피아여학교에 있는 '원스보로우홀'을 건축하고 남은 돈으로 지어졌다. 붉은 벽돌로 건축되었으며, 독특한 박공지붕, 왕대공 트러스 등은 당시의 건축 양식과 기술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건축물로서 가치가 높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민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유적> 중 -

- 광주수피아 여자고등학교 소강당 안내판 참고 -

홍성천(홍균)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발뱅이 www.hongsoon.net



28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5/28~6/3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시 119:172)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20 그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aggai a second time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month:

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Tell Zerubbabel governor of Judah that I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22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I will overturn royal thrones and shatter the power of the foreign kingdoms. I will overthrow chariots and their drivers; horses and their riders will fall, each by the sword of his brother.

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
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Almighty, ‘I will take you, my
servant Zerubbabel son of Shealtiel,’ declares the LORD, ‘and
I will make you like my signet ring, for I have chosen you,’
declares the LORD Almight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은혜 안에서 안내받는 삶이 복입니다(20~22).

2장 19절에 이르러 학개서는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성경에는 복 이전에 저주를 받아 온 유다의 상황이 제시되었는가 하면, 이에 상응하여 선지자 학개는 유다 지도자와 백성의 무감각함을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믿음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행위를 살피고 돌아오기를 재차 부탁하시며 정한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영광스런 새 성전도 완공될 수 있는 미래를 보여 주셨습니다. 물론 정한 마음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시작될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은 유다 민족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표징으로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으로 안내하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이기에 앞서 은혜에 돌이키는 마음을 촉구하는 예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학개를 이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어지며 스스로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증언됩니다.

2.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23).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놀랍게도 이전의 성전보다 영광으로 가득할 새 성전을 예고하는 학개서의 결말은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세우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다윗 집안의 후손인 그가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새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견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물이 연합되는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는 유다의 해방을 표면적으로 예고하는 22절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만물의 회복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연합한 인간과 함께하시며 복을 베풀겠다고 맹세하시는 여호와의 다함없는 은혜가 마음을 더욱 사로잡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여호와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인생은 비로소 평안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르치는 학개서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비워져야 할 것들을 돌아봅시다.
2. 학개서를 살피며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였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하루임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립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2:4~9 ⁴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⁵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⁶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⁷ 네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네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⁸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⁹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30

마가복음 14:66~72

화요일

오늘의 찬송 305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말씀 속으로

66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While Peter was below in the courtyard, one of the servant girls of the high priest came by.

67 베드로가 불 쪼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 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When she saw Peter warming himself, she looked closely at him. "You also were with that Nazarene, Jesus," she said.

68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But he denied it. "I don't know or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he said, and went out into the entryway.

69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When the servant girl saw him there, she said again to those standing around, "This fellow is one of them."

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Again he denied it. After a little while, those standing near said to Peter, "Sure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 are a Galilean."

71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is man you're talking about."

72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Immediately the rooster crowed the second time.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And he broke down and wept.

14:68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베드로의 배반이 시작됩니다(66~70).

예수님이 공회에서 능욕을 받으시는 사이, 멀찍이 주님을 따라온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 뜰에서 몸을 녹입니다(14:54). 아마도 집안의 하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불을 쬐며 추위를 녹인 걸로 추측되는데, 갑작스레 한 여종이 다가와서는 말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67절) 그러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68절)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를 서둘러 떠나며 앞뜰로 나아가는 길에 또 한 번 주님을 배반하고 맙니다(69~70절). 어느새 두 번의 배반이 이루어지고, 한 번의 돌이킬 기회가 남은 시점에 베드로가 느꼈을 심정이 문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느라 급급한 나머지 주님의 말씀은 생각조차 못했는지, 아니면 두 번이나 행해진 배신에 베드로 스스로 자책하며 떨고 있었는지 주목이 됩니다.

2. 마침내 닭이 두 번 울고 베드로가 읊니다(71~72).

베드로에 맞선 여종의 고발에 이어 또 다른 무리의 음성이 퍼집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70절) 흥미롭게도 베드로를 둘러싼 고발이 세 번에 걸쳐 일어나는 동안 음성의 강도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하여 베드로 역시 첫 번째 배반 때에는 시선을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무리를 저주하는 당당함마저 보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71절) 한 번의 배신이 두 번의 배신을 낳고, 두 번의 배신이 세 번의 배신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때에 닭의 두 번째 울음소리가 어둔 밤을 흔들어 깨우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72절). 그 말씀은 비단 배신을 예고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마음을 찌르는 칼로 다가와 베드로로 하여금 엎드려 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자책 속에서 무리를 향하여 내뱉은 저주가 실은 못한 자신을 향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워 주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세 번에 걸친 완벽한 배신 끝에 베드로는 엎드리어 자책합니다. 그의 모습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이끌며 또한 바르게 세워 갑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9:7~8,11~14 ⁷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⁸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¹¹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¹²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알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¹³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¹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31

수요일

마가복음 15:1~15

오늘의 찬송 96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속으로

-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chief priests, with the elder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whole Sanhedrin, reached a decision. They bound Jesus, led him away and handed him over to Pilate.

- 2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asked Pilate.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The chief priests accused him of many things.

- 4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So again Pilate asked him, “Aren't you going to answer? See how many things they are accusing you of.”

-
-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But Jesus still made no reply, and Pilate was amazed.

- 6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Now it was the custom at the Feast to release a prisoner whom the people requested.

- 7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A man called Barabbas was in prison with the insurrectionists who had committed murder in the uprising.

- 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The crowd came up and asked Pilate to do for them what he usually did.

- 9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the king of the Jews?” asked Pilate,

- 10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앎이러라

knowing it was out of envy that the chief priests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15:6 전례

로마의 품위를 과시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But the chief priests stirred up the crowd to have Pilate release Barabbas instead.

-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What shall I do, then, with the one you call the king of the Jews?” Pilate asked them.

- 13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Crucify him!” they shouted.

- 14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Why? What crime has he committed?” asked Pilate.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Crucify him!”

-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Wanting to satisfy the crowd, Pilate released Barabbas to them. He had Jesus flogged, and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1~5).

밤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쬐며 몸을 녹일 만큼 어둠이 깊은 밤에 예수님이 공회에 잡히셨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새벽’ 곧 동이 떠오르는 무렵에 공회는 서둘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1절).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까닭인데, 밤사이 공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얼마나 성급했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잡혀온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2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놀랐게도 주님은 “네가 옳다!” 말씀하시고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에서 빌라도는 내심 죄 없으신 주님을 직감했을 법도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며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는 인물은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마냥 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넘어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서 말씀을 응하시려고 함이었습니다(사 53:7).

2. 바나바가 풀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집니다(10~15).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빌라도의 죄를 부각시키는 듯합니다. 기나긴 침묵에도 불구하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는 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리라”(10절) 그럼에도 유대인에게 공분을 사면 빌라도 자신의 입지도 불리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따라 알고도 모르는 척 눈감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무리를 향하여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12절)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무리들의 고함이 공중을 가득 메우자 주님이 채찍을 당하시고 능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넘겨지시게 됩니다. 그때에 열심당원의 핵심 인물로서 로마 정부에 폭동을 일으킨 바나바가 대신하여 풀려났다는 기록이야말로 예수님에게 내려진 판결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는지를 전해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거짓에 대한 침묵은 진리를 증언하는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묘사된 빌라도를 보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1:8~9,19~21 ⁸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⁹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립니다. ¹⁹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크지요? 주님께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²⁰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험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²¹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기도 독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숙면 경청과 칭찬

말씀이 안내하는 삶으로

하나님,

늘 위대한 길을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양같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식탁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이틀마다 기쁨이 가득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직장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참으로 감사한 하루,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4.19(수) 새벽기도회 중에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 20:29)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19)

기독교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모 교회 대학부 시절, 부활에 대한 대학생들의 질문에 담당 부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연을 하늘 아득하게 높이 띄어 보면 연은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팽팽한 연실은 하늘 어딘가에 연이 날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신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타 종교와의 차별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에 앞서 부활을 예고하셨다. 사복음서 여러 곳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다. 부활은 예수를 좇던 제자들에게도 믿기 어려웠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 17:22-23)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고,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못 자국을 만지고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 (요 20:25)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마에게 말을 건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7) 결국 보고 만지고 나서, 도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 외쳤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 하



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 20:2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다.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세이다.

<부활>의 상황

서기 33년, 유대의 로마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호민관 클라비우스(조셉 파인즈)는 예수 그리스도(클리프 커티스)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이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종된 시신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 영화는 불신자의 눈을 통해 전해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호민관인 클라비우스와 그의 보좌관 루시우스는 부활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반증하고, 예루살렘에서 봉기를 막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임무를 맡게 된다. 영화에서 클라비우스는 의심할 여지없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제자들과 함께 자리한 것을 눈으로 목격한 후 진리를 찾기 위해 나사렛 사람인 그분을 쫓는다고 말한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몬테 크리스트 백작> 등을 연출한 케빈 레이놀즈 감독은 역사와 신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부활>을 그리고자 했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클라비우스는 바라바가 이끄는 유대인 열십당원들과 전투에서 로마 병사들을 이끈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감독하기 위해 그를 보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밤, 봉인돼 있던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로 부활해 로마군에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번져 나간다. 이후 클라비우스는 진실을 찾기 위해 파견되어 조사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제자들은 로마군들의 끊임없는 위협 아래 흩어지고 겁에 질려서 모두 숨게 된다.



그들을 뒤쫓다가 어떤 집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뒤쫓아 먼저 들어가게 된 클라비우스는 제자들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후 뒤따라오는 보좌관 루시우스는 돌려보내고, 그 놀라운 현장에 클라비우스는 혼자 들어간다. **클라비우스는 제자들과 갈릴리로의 여정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경험함으로써 호민관이라는 직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된다.** 여러 예수 관련 영화 중에서도 클리프 커티스의 부드럽고 자애로운 예수의 연기는 손에 꼽힐 정도로 탁월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톰 펠턴이 연기하는 보좌관 루시우스 캐릭터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특히 극적으로 눈에 띄는 장면은 무덤의 경비병 중 한 명이 충격, 공포, 경이로움이 뒤섞인 부활의 순간에 일어난 일을 클라비우스에게 설명하는 장면과 클라비우스가 제자들을 찾기 위해 다락방 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

이 영화가 불신자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카메라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 이 영화를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번 더 새겨지면서 진실된 교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되새긴다.**

모습은 달라도

글 교회학교

TOGETHER



선물처럼 찾아온 은혜

유년2부 김예숙 (집사)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게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교사인 듯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보지 못한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봉사하였던 전학년부가 없어지면서 섬의 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봉사하시는 선생님이 22년 코로나 이후 재개된 유년2부 여름 수련회 봉사를 참여해 보면 어떠하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망설이는 저에게 다가오는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유년2부는 여태 섬기던 학년의 아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이야기를 듣고도 조심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그 마음이 풀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스스럼없이 처음 보는 저에게 다가오고 찬양, 율동, 분반 공부까지 어찌나 땀 흘리며 열심히 하든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질문이라도 하시려면 너도나도 답이 틀려도 손을 들고 돌진하는 모습에 짜릿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 이는 것과 체험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분명 처음 봉사할 때 느끼고 알고 있던, 또는 잊고 있었던 어떤 순간들. 여러 교육 부서를 지나오며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저를 일깨워주는 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홀로 하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공동체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흐릿하여질 즈음에 얻게 된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믿음을 알아 가고 만나는 시간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지만, 예배 준비를 위해선 그 외 많은 손길이 같이 따라갑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의 교사경건회,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 예배 후 다음 주를 준비하는 교사 회의까지, 사이사이 맞추어지는 손길이 모



그림 Brunnera macrophylla 'JackFrost'

든 교사가 한 몸의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마치 든든한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는, 제가 그런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처럼요.

이보슬 목사님의 인도 아래 교사 경건회 시간에는 성경을 같이 읽고, 말씀에 머무르면서 저라면 어떠하였을지 말씀을 가까이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 주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이 짧은 시간이 어찌나 귀한지! 교사 회의 시간에는 교사들이 나눈 각각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기도해 주실 때면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희망의 힘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언제나 활동하시는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건강한 식물이 피어나가듯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몇 달 뒤면 아이들과 곧지암으로 여름성경학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 헤프닝이 있겠지만 얼마나 또 뜨거울까, 기대하는 마음이 큼니다. 저도 함께하는 친구로 참여하며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설이거나 머무를 때 다가와 준 손길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손길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예수 부활

초등1부 최지영 (집사)

2004년에 소년부에서 열정적인 목사님을 만나 처음으로 '매일 성경 읽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란, 주보 뒷장에 성경 말씀 구절과 문제를 푸는 큐티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으려면 성경을 정독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경 말씀을 동화처럼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대학 때는 일 본인 목사님이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단어에 담긴 의미까지 세세하게 알려 주셔서 성경의 깊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주일학교에서 진행되는 매일 성경 읽기가 반가웠고, 이 좋은 방식을 적어도 우리 반 아이들은 다 해 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해 온 친구들만 비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과자나 장난감, 학용품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원과 여행으로 종종 주일 예배를 빠지는 아이도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성경 읽기를 푸는 습관이 생겼고, 학부모님도 신기해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한 아이의 성품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자 주일마다

늦잠 주무시던 아이의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고, 어느 해에는 반 아이 7명 중 5명이 사도신경을 못 외워서 전원이 노래 부르듯이 암송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생기자 어떤 아이는 가족 모임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앞에 나가서 사도신경을 암송했더니 용돈도 생겼다고 자랑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 행동이나 말이 다소 느려서 어려움이 있었고 국어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조용한 장소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풀면서 집중력과 독해력도 좋아져서 성적이 상위권에 들게 되었고 아이와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이 생각나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작년 부활절과 이번 부활절에 사랑하는 선배님이 두 분이나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 마음 좋은 선배님은 웃으시면서 사랑하신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하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가득 차 도망갈 정도로 나약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눅 18:33),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그토록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하거나 다시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가시고 권면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일마다 만나는 아이들에게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도 들려주지만 예배의 중요성과 성경을 꾸준히 삶으로 알려 주지 않으면 성경 속 제자들처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모르고 떠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5-6명의 아이들과 매일 성경 공부를 전화로 나눕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아이들마다 나누는 내용이 신기하게도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읽고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주시는 교훈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나누기도 합니다.

주일학교는 제 신앙의 기준이 되고 활력과 소망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힘들 때면 아이들이 기막히게 알아보고 비수를 쫓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잡고 성경 앞에 서게 됩니다. 슬픔과 이별은 예수 소망과 예수 부활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지인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저를 만난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셔서 복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모인 주일학교 예배에 모여드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는 주일학교 교사되기를 소망합니다.

현화이야기 17

5월,
우리의 고백



3월 26일 주일

글 김미혜 (권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가시면류관의 사랑이,
그 아픔의 눈물이 내게로 와 사랑이 되었네.
나를 내려놓아야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



4월 7일 성금요일

글 임한숙 (권사)

‘그 사랑’



4월 9일 부활 주일

글 김동순 (권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글 박경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그림 이근복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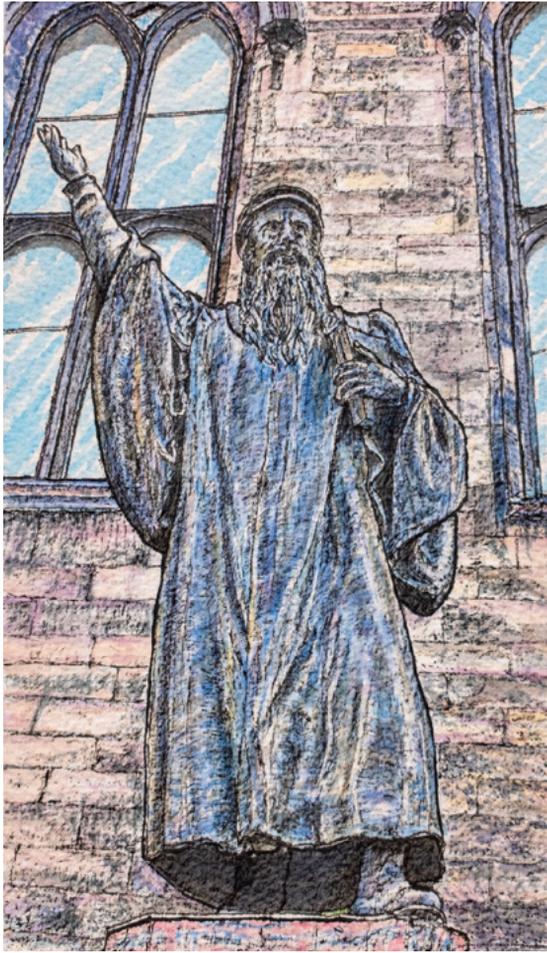


그림 1

존 녹스(c.1513-1572)는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로 흔히 '장로교회의 아버지'라 불린다. 1560년 녹스와 다섯 명의 동료는 종교 개혁 정신을 담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장로교회 정치 원리를 표명한 '스코틀랜드 교회차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스코틀랜드는 최초의 장로교 국가가 되었다. 이로써 유럽 개혁교회 전통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 전통으로 이어져 꽃피게 되었다.

[그림1]은 에든버러 대학교 신학부인 뉴칼리지 교정에 있는 녹스 동상이다. 왼손으로 권 성경을 가슴에 대고 있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 녹스가 품은 개혁 정신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녹스가 목회했던 에든버러 세인트 자일스 교회당 입구

와 내부에도 동상이 있는데, 모두 성경을 든 모습이다. **녹스는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올곧게 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가감 없이 소리 높여 외치고 전했다.** 번쩍 치켜든 오른손은 그가 왕이나 귀족이나 백성이나 그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하늘의 뜻을 전한 나팔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듯하다.

녹스의 외모에 대한 기록을 보면 붉은빛이 감도는 수염을 가졌고, 키는 작은 편에 속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우렁찬 목소리를 지녔다고 전해진다. 잉글랜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사신이었던 토머스 랜돌프는 녹스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귓전을 때리는 오백 개의 나팔보다 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음”이라고 썼다. 우렁찬 목소리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나팔을 분 녹스에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녹스는 1513년경 에든버러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해딩턴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이후 에든버러 북쪽으로 80km 거리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는 녹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인 1413년에 세워진 스코틀랜드 최초의 대학이다. 그곳에서 녹스는 자기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인 패드릭 해밀턴과 조지 위샤트를 만나게 된다.**

(그림2)는 해밀턴과 위샤트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1842년 설립한 기념탑이다. 해밀턴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학생으로, 유럽 대륙에서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고 돌아와 루터주의 사상을 전파하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체포되어 1528년 2월 29일 공개 화형을 당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그의 나이는 고작 스물넷이었다. 해밀턴의 영적 고향이 독일이었다면, 위샤트의 영적 고향은 스위스였다. 위샤트 또한 스위스에서 개혁 전통을 배우고 돌아와 종교 개혁 사상을 가르치다가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1546년 서른셋의 나이로 화형대에서 순교했다. 해밀턴과 위샤트, 생각하면 너무나 꽃다운 청년들이 아닌가. **지금도 해밀턴이 순교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채플 앞길과 위샤트가 순교한 세인트 앤드루스 성 앞길에는 그들 이름의 첫 글자(PH, GW)가 새겨져 있다. 여전히 살아 있는 그들의 영향력은 높은 기념탑처럼 우뚝 서 있다.**

녹스는 해밀턴에 대해서는 풍문으로만 들었지만, 위샤트와는 직접 만났다. 녹스가 위샤트의 경호원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미친 위샤트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녹스가 프로테스탄트로



그림 2

회심한 것도 위샤트의 영향이겠다. 위샤트가 죽임을 당하자 녹스를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은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점령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권에 저항하며 개혁을 요구했다. 어쩌면 이들은 프로테스탄트에게 우호적인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는 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헛된 꿈이었다. 결국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함대가 성을 함락했고, 녹스도 체포되어 포로 신세가 되었다. 녹스는 프랑스 갤리선에서 사슬에 묶인 채 1547년 7월부터 1549년 2월까지 19개월 동안 노예로 살아야만 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지만, 하나님은 녹스를 스코틀랜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복음과 상황>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게재하였습니다.

칼뱅의 영향을 받은 브뤼헐_종교개혁

글 허윤정 (집사)





종교 개혁은 교회의 개혁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삶 전 영역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미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 제단화에 가져온 변화를 뒤러의 작품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영향력이 미술에 일으킨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에 대한 루터와 칼뱅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수단으로 미술을 적극 사용하며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이미지 사용을 장려했지만, 칼뱅은 기존의 가톨릭 미술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성상을 엄격히 금지하고 기존 교회의 성상들을 모두 파괴하는 성상 파괴 운동^{Iconoclasm}으로 진행됩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배경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 당시 독일 내의 제후 세력의 도움과 지지로 개혁을 하게 되지만, 칼뱅은 기존 가톨릭 귀족 세력과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당시 제후 세력의 반대편에서 있는 농민 반란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성상 파괴 운동을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귀족의 손에 희생되었지만, 칼뱅의 종교 개혁은 기존 세력에 대한 저항과 연결되

어 가톨릭 성상 파괴 운동에 적극적으로었습니다. 칼뱅의 개혁이 가장 불붙은 곳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스페인의 속령인 네덜란드에서는 신교도들이 늘어나면서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신교도들은 1566년에 대대적인 성상 파괴 운동을 일으켜 가톨릭 교회에 큰 손상을 입혔으며, 이후 80년간 네덜란드는 독립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종교 개혁은 그 당시 네덜란드 미술가에게는 커다란 고난이었습니다. 성상 파괴 운동으로 수많은 성상과 종교 이미지 제작을 담당하던 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스페인의 압정 속에서 독일과 같이 개혁교회 스타일의 작품도 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술가들은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초상화, 풍자화, 풍경화, 정물화 같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칼뱅의 미술에 대한 입장을 다루고 가겠습니다. 칼뱅은 『기독교강요』 1권 11장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며(출 20:4), 눈에 보이는 대상물 외에 어떠한 것을 회화로 표현하거나 조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성상 제작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미술 자체를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로마서 1장에 따라 자연적인 세계를 긍정하며,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 성령의 탁월한 은사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칼뱅의 영향으로 네덜란드 화가들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작품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 화가들 중 피터 브뤼헬(Pieter Bruegel the Elder, 1525-1530)의 작품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은 브뤼헬의 <맹인들의 우화>라는 풍자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교회에 있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6명의 맹인들이 길을 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제일 앞에 가는 맹인은 이미 넘어진 상태이고, 뒤이어 가는 맹인들도 곧 넘어지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작품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마 15:14)

마태복음 15장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지적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 먼 사람임을 말씀하시는데, 브뤼헬이 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1. 피터 브뤼헬 더 아우더, 맹인들의 우화, 1568

기존의 가톨릭 성화가 신적 존재를 형상화하였다면 브뤼헬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의 기독교 성화와 다른 방향으로 신교에 적합한 미술 형태를 개척해 낸 것입니다. 이전 성화와 다르게 무엇이 위선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은 본인의 위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은 더러운 손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내면의 위선을 돌아보지 않을까요? 스스로가 맹인임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브뤼헬은 풍자화를 통해 네덜란드의 정치적·종교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시하였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의 신교를 탄압하자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은 1566년에 성상 파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펠리페 2세는 알파 공작을 네덜란드에 파견하게 되고, 이때 신교도들 10만 명 정도가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브뤼헬은 정치적·종교적 지도자들의 탄압을 경험하여 풍자화를 통해 검열을 피해 가면서 정치 종교적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모순적인 현실을 풍자할 수 있는 '종교적 풍자화'라는 미술 장르가 칼뱅의 종교 개혁 영향으로 개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그림1. https://en.wikipedia.org/wiki/The_Blind_Leading_the_Blind#/media/File:%D0%9F%D1%80%D0%B8%D1%82%D1%87%D0%B0,%D0%BE,%D1%81%D0%BB%D0%B5%D0%BF%D1%8B%D1%85.jpeg

암 환우분들과의 동행

글 한상돈 (집사)



모교에서 의학교육학과를 개설하고 임상 진료와 거리를 둔 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다시 익숙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혈액종양내과를 전공한 친구가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는 암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대형병원에서 암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70-80분이 입원해 계신다. 입원한 채로 외래 진료를 다녀오시거나 항암 치료 등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퇴원을 하고 본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암요양병원은 본 병원의 치료 사이사이에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수월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요양기관인 셈이다. 다만, 이곳에서의 치료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일매일 암 환자를 마주 대하는 일상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인 친구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신경과 환자 위주의 진료를 했던 나에게는 익숙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포독성 항암제 밖에 없어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온 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약들이 개발되어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치료에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아졌으며, 요양병원에서 보조적 치료의 도움을 받아 걸음으로 보기엔 암환자인가 싶을 정도로 멀쩡해 보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의사인 나조차 놀라기도 했다.

참고 | 항암제의 종류

세포독성 항암제 :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의 세포 분열을 공격하여 항암 작용을 나타내지만, 비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암세포 이외에도 세포 분열이 빠른 정상 세포(모근 세포, 위장관 세포 등)의 손상이 초래되는 전통적인 항암제

표적 항암제 : 암세포에 주로 발현되는 표적 물질을 매개로 하여 암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부작용이 덜한 항암제

면역 항암제(면역 관문 억제제) : 정상적인 면역 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암세포를 제대로 공격하도록 면역 세포의 기능을 높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제

소위 '불치병'을 선고받은 환자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의사라면 당연히 익숙한 일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없다. 그냥 직접 겪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나 동료 의사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물론 요즘 의학교육에서는 '나쁜 소식 전하기'라는 영역을 별도로 다루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기술은 아니기에 진정으로 이해하고 대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 암 환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위로한다는 것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분야였다.

초기에는 매주 수요일 저녁 '기도와 찬양' 모임을 주도하면서 신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기타를 둘러메고 준비해 간 악보를 함께 보면서 찬양한 어떤 날에는 환자로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라는 위로(?)까지 받았다. 매주 함께 나눌 말씀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와 기도 제목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를 몇 달째 이어 가던 어느 날, 함께 모임에 참여하던 환자분의 소천 소식이 전해졌다. 항암제가 본인에게 맞지 않고 암이 줄어들지 않아 약을 바꾸기로 했다는 분,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피부 트러블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분, 추가 전이가 발견되어 치료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분 등의 다양한 사연은 항상 있어 왔지만 죽음이라는 상황은 조금 달랐다. 모두가 암 환자이고 남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조금은 더 특별한 위로가 필요했을 테지만,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 그날은 소천 소식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모임을 마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암 진단을 받고 완치까지의 과정을 잘 헤쳐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암을 이겨 내기 위해 애쓰다 이내 스러져 가시는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다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 드려야 하는 때도 있다. '저 분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다 문득 나의 기한은 얼마나 남았을까를 돌아보게 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런 저런 말들에 혹해서 엉뚱한 치료를 받느라 더 고생하시지 마시고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라는 위로되지 않을 말씀을 드리다가 나는 누구와, 어떻게 채워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말씀이 있다.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에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설마 고통을 당하라고 생명을 주셨거나,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해 인생을 허락하셨겠는가! 복을 누리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신앙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겠지만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제대로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가능한 일이다.

천국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하나는 "당신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은 땅에서 어떤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이란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든,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이 닥쳐왔을 때 과연 나는 두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죽음이 머지않았고 그래서 미래를 기약하기보다 과거를 돌아보고 얼마 남지 않은 현재를 살아야만 하는 시기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 염려하고 애쓰며 살기보다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고 지금의 의미를 찾는 것에 더 집중하면 어떨까? 매일매일 암 환우분들을 대하며 나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힘 주시기를 간구한다.**

4월 첫째 주

교사 헌신의 밤

올 한 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교육부 부장, 부감, 교사 600여 명이 지난 3월 8일 ‘교사 헌신의 밤’으로 모였다. 예비 교사들은 ‘우리 오늘 눈물로’ 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기쁨으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설교를 맡은 교회학교 1부 담당 이재겸 목사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생들을 향한 수고와 헌신의 씨뿌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강조했다. 말씀 후 교회학교 1부 이장현 부감이 대표로 교사 사명 선언의 시간을 가졌고, 교회학교 교사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소년 2부 홍광의 부장, 고등 2부 조경숙 부감, 영아 1부 성동우 교사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말씀과 사랑으로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625명의 장로, 부감, 교사들을 위해 격려와 축복의 기도를 했다. 예비 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아이들을 향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세대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 양성소 ‘43기 교사대학’이 지난 3월 21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9월 6일 졸업 및 수료예배를 마치고 교회학교 교사로 준비된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소망의 교사들을 축복한다.



4월 셋째 주

고난주간 · 부활절



지난 4월 6일 저녁 7시 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후 3년 만에 성목요일 성찬식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았다. 이튿날 오전 10시 성금요일예배에서는 한경운 목사의 예배 인도로 십자가, 가시, 띠를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목상했다. 4월 9일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66명이 입교하고, 50명이 세례를 받았다. 입교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소망했다. 부활절 예배에서 김경진 담임목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성도들은 3년 째 진행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나눔 행사에 동참하며 희귀·난치병 환우를 돕는 모금 행사에 함께하거나 헌혈로 사랑을 나눴다. 저녁 7시 30분에는 1부 베다니 찬양대와 소망 베다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제로 부활절 축하 기념 음악 예배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부활을 꿈꾸는 소망의 성도들,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2023 | 05

발행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 환
유지미
이경희
김영규
홍성민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위크위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4월 29일(통권 137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pd@naver.com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4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책, 생기를 불어넣는 벗
소망서점

영업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월요일 휴무)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문의 : 02)512-0617, 512-9191(내선148번)

